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主幹 宋赫
編輯部長 李相宰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㉗8131~9
本社直通㉗8577

每週火曜日發行

### 今週一言

譬如厚石,
風不能移,
智者意重,
毁譽不傾.

아무리 바람이불어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것처럼, 어진사람은 뜻이굳세어 비방과 칭찬속에 움직이지않는다.

<法句經>

# 4學年만 23日 開講

## 學處長會議 단계적 開講方針

## 家庭學習課題 성적 反映

### 李總長 敎授의 學生指導責任 강조

敎務處

지난 11일 야기된 學園소요事態로 인하여 家庭學習에 들어간 本校는 23일부터 4學年만 開講하기로 했다。19일 李瑄根總長의 주재아래 열린 學處長會議에서는 4학년만 23일 開講하고, 기타 學年은 勉學雰圍氣가 조성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全面 開講할것을 결정하였다。학교당국은 開講을 앞둔 22일 全體敎授會議를 소집하고, 開講에 따른 學事문제와 學生指導方案등을 수립했다。이에 앞서 李瑄根總長은 지난14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家庭통신문을 보냈다。또한 各學大別로 家庭學習期間中 課題物을 부과, 14일 발송했다。

## 22日 全體敎授會議

전체 교수회의가 22일상오10시부터 李瑄根 總長을 비롯한 學處長과 1백30여명의 교수가 참석한가운데 본관 교수실에서 열렸다。

이자리에서 李總長은 지난11일 발생한 學園소요事態에관해 言及『크메르, 越南사태나 北傀의 심상치 않은 動向에 비추어 볼때 우리의 객관적 여건은 6·25동란의 발발당시보다 위급한 時點』이라고 말하고『學園의 소요사태는 국가안보와 대학의 勉學분위기를 위협하는 사태』라고 말했다。

또한 李總長은 교수들에게『眞理探究에 못지 않게 敎育者로서의 責任』을 특히 강조한 다음『學生處罰이야말로 本人이 가장 가슴아픈 일』이었다고 말하고, 교수들은 學生들과의 對話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책임있는 指導에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金仁鴻교무처장은 ①缺講이 없도록 하고 ②講義時間의준수 ③이미 學生들에게 배부된 家庭學習과제는 開講과 동시에 받아서 成績에 반영토록하는것등 敎務處의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鄭允武 학생처장은 學生指導에대한 방안을 설명한 다음, 各大學別 교학과장을 중심으로 주임교수 및 學年別 지도교수의 학생활등지도를 부탁하였다。

이날 교수회의에서는 趙昌華총무처장의 소관업무報告도 있였다。

## 4學年 敎生實習

### 來 1日、오리엔테이션

敎生實習「오리엔테이션」이 오는 5월1일 오전10시 F108강의실에서 실시된다。

이번「오리엔테이션」은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교무과에 교생실습 신청을 마친 학생(사범대생제외)에 한하며 이 시간에는 28일부터 30일사이에 교무과에서 배부하는「교생실습편람」책자를 지참해야 한다。

오전의「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오후에는 明星女中高에 실습 나가는 학생은 실습학교에 나가 신고식을 해야한다。

그런데 이번 敎生實習은 5월5일부터 31일까지 師範大學은 師大부속중고에서 다른大學은 明星女中高에서 실시하게된다。

◇4·19 열다섯돌을 맞아 東友塔에 獻花하는 學生들.

## 東國人登山大會 學園事態로 延期

지난20일 열릴 예정이던 제6회 東國人登山大會가 무기 연기되었다。

지난11일 있었던 學生示威사태로 12일부터 가정학습에 들어가자 東國山岳會는 이 행사를 무기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보리수

### 職分의 限界

「카스트」制度는 印度社會性格을 특징짓는 身分制度로 알려져 있다。四姓階級이라고도 불리우는 이제도는 各 階級에 따른 상이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고 階級과 階級사이는 엄격하게 구분되고있다。종교적 정신적 지도자인「브라만(司祭)」계급, 국가를 통치하는 行政的지도계급인「크샤트리아」(王族) 계급, 일반국민대중인「바이샤」(平民)계급 그리고 사회의 下層을형성하는「슈드라」(賤民)계급의 4개의계급으로 분류되고있다。이러한 身分制度는 인도社會발전의 停滯的인 要因으로 지적되기도 한다。民主社會를 표방하고,人間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오늘날 이제도는 분명히 前世紀的인 유물로 人間性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身分制度인 것이다。한 人間의 가능성을 미리 계획된 사회제도속에 묶어놓아 그 창조성을 박탈해 버리고 유기적인 社會의 力動關係를 고정시키는것이 이 제도라고 생각될 수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印度社會의 병폐를 거부하고 일종 인간해방선언을 한것이 부처님의 敎說이었다。한 인간을 결정하는것은 그의 행위(業)에 따를뿐 출신성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의 社會的 분위기를 생각할때 이런 주장을 한것은 거의 革命的인 발언에 가까운 것이었다。그러나 부처님은 계속하여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職分을 충실히 수행할것(正業)을도한 강조하였다。우리에게 주어진 활동의 가능성은 무한하기만 한것은 아니다。그리고 의도한다고모든 일이 그대로 이룩되는 것도 아니다。政治를 위해 權力을 지향하는사람이 있을수 있고 진리 탐구를 위해 學者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政治와 學者의 길이 동시에 추구될수 없음을 職分의 수행(正業)이란 말로 표현한 것이다。사회의 力動性이나 한 인간의 창의성은 혼동된職분의식 가운데서 나올수 없기 때문이다。

근래에 이「카스트」제도를 이러한 職分의分化란 의미에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고보면 인도 사회의 정체성은「카스트」제도에서 기인된것이라고 단정할수도있다。오히려 분화된 직분은권장할만한 일이라 생각된다。정치 권력의「메카니즘」을 學園에 그대로옮겨놓은 듯 행사하려는사태가 비일비재한 오늘의 大學社會를 생각할때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가무엇인지를 똑바로 인식하고 그 한계내에서 활동하는 일이야 말로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者라 생각되는 것이다。

<李珉容>

## 除籍 7명、停學7명

### 11日 本校生 소요事態

本校生 5백여명은 지난 11일(金) 12시30분부터 校庭에서「言論탄압중지」「學園사찰중지」등을 요구하는 示威를 벌이고 正門과 後門에서 기동경찰과 대치、오후4시半경 해산했다。

이날 學生들은 非常總學生會(회장=全義鎭·건축3)를 結成、學處長과 교직원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크럼을 짜고 校內示威를 벌이다가 정문앞에서 경찰의 최루탄세례에 밀려났었다。

오후 4시경 鄭允武학생처장은 방송을 통해 學生들의 해산을 종용했다。學生들은 愛國歌와 校歌를 제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學處長과 敎授、敎職員의 만류로 자진해산했다。

이날 데모사태로 全義鎭군등 3명이 구속、5명이 구류처분을 받았으며 학교당국에서는 11일 긴급 학사처장회의를 개최、6시부터 당분간 家庭學習期間으로 결정하는 한편 全義鎭군등 7명을 제적시키고 7명을무기정학 처분했다。

◇除籍 ▲全義鎭(건축3·입건)▲趙英熙(政外3·입건)▲崔應一(농학2·입건)▲康柱德(인철3)▲金建洙(법학2·구류5일)▲金起憲(전산3)▲車浣王(行政2·구류7일)

◇無期停學 ▲李馥雨(승가3)▲高鍾寬(인철2·구류5일)▲金在俊(佛敎3)▲鄭在郞(인철2·구류5일)▲金永旭(國文3·구류5일)▲李京淑(수교2)▲金武峯(國文2)

## 사진클럽暗室마련

### 學生會館地下1層

東大사진클럽(會長=함주용·經濟3)은 75학년도써클재등록을 계기로 金周弘(전자공학과)敎授를 지도교수로 하는 한편 학생회관地下1층에 암실을 마련、新入회원들의 실습을위한 효율적 활동을 벌이게됐다。

회장 함주용君은『약3평규모의 이 암실이 학생과 배려로 마련됐으며 오는6월까지 諸시설을 完備、회원들의 현상·인화실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故 盧熙斗君등 追慕

### 4·19義擧 열다섯돌

4·19의거 15주년을 맞아 본교에서는 지난 19일 오전9시 東友塔에서 추도식을 가졌다。

民主수호와 독재 타도를 부르짖다가 숨져간 故盧熙斗군등을 추모하고 4·19의거의 참뜻을 되새긴 이날 추도식에는 學·處長과 학생대표들이 참석하여 헌화와 분향을 하였다。

지난 12일부터실시된 가정학습으로 일반 학생들의 모습은 드물었고 오전10시경 사대회장 조영구(사교·4)군등 6명이 헌화와 분향을 하고 돌아갔다。

## 春季大學野球

### 本校 2勝1敗

지난 15日 개최된 東亞日報社주최 春季大學野球聯盟戰에 출전하고 있는 본교팀이 延大、中大등 강호를 물리치고 2勝1敗를 記錄、19日現在 선두그룹에 나섰다。

2勝1敗의 전적을 가진 본교팀은 24日 對仁川體專、5月4日 對경희대、5月5日 對건국대등 6戰을 남기고 있어 선두그룹진출에 온갖 힘을 쏟을것으로 보여진다。<3面解說記事참조>

## 食工科서招請講演

### 11일、禹震和동문등

식품공학과주최 취업정보를 위한「선배초청강연회」가 지난11일오후1시 工大「세미나」실에서 있었다。

金昌湜주임교수를 비롯하여 1백50여명의 학생이참석한 이번 강연회에는 禹震和(65년卒·大韓綜合食品 구매부대리) 동문과 崔聖燮(72년졸·해태제과생산2과장) 동문이 초청되었다。

강연에 나선 禹震和동문은 식품가공에 따르는 문제점및 공장견학과 실습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습나갈때의 주의점등을 환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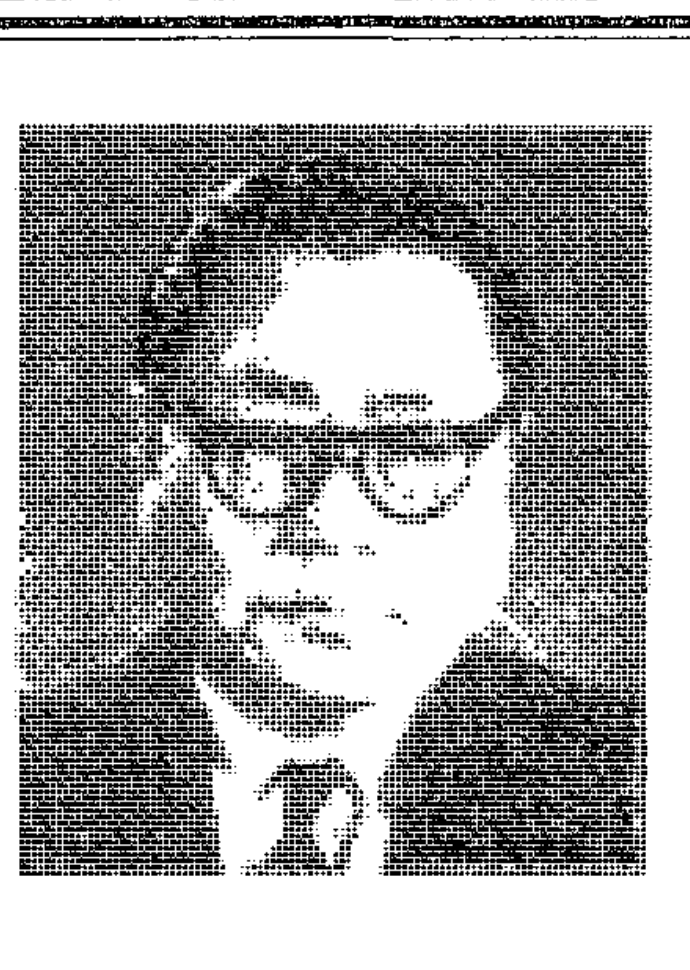
특히 동조림은 국내의 원료사정과「아이디어」만개발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분야라고 하면서 연구개발을 강조했다。

한편 崔聖燮동문은 입사후에도 새로시작한다는 신념으로 最下部부터 파악하며 겸허한 자세로 근무하고 모르면 물어서라도 배우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리더」는 명령보다는 도움을 청하는 태도로 이끌어야하며 현상태에 만족하지말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개선해나가는 자세를 가져야한다고했다。끝으로 취업시험에서는 英語과목을 중요시하라고 당부했다。

## 勉學분위기 自律的으로 守護하라

### 學生諸君에게



總長·李瑄根

새 學年度를 맞아 건실한 勉學분위기가 조성되었던 本校에, 뜻하지않은 사태가 야기되어 당분간이나마 家庭學習期間을 설정하게된 것을 敎授여러분과 더불어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學生諸君의 건강과 勉學을 비는 바입니다。

### 難局절감、냉철한 理性을 學究·思索하는 자세긴요

現代社會는 기대와 欲求의 대량폭발 시대이기때문에 어느 國家, 어느社會에나 不條理와 矛盾, 그리고 갈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國土가 분단되고 地政學的 緊張要因이 尚存해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國家安保문제가 강조되지않을수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생제군이 대학생활을 영위하는 根本目的의 하나는 이러한 人間社會의 모순과 국가적인 難局을 학문의 탐구와 人格연마로 그 本質的인 해결의 힘을 기르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제군을위한 大學의 敎育과 연구기능은 어떠한 위기와 混亂속에서도 자율적으로 수호되어야하고, 혼란과 위기의 時代일수록 오히려 더욱 勉學에 정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학생제군의 使命이 이처럼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學問外的인 문제로 동요하거나 學園의 질서가 파괴된다면 그것은 國家民族的인 次元에 있어서나, 大學과 學生諸君의來日을 위해서나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학생제군!

여러분은 오늘을 사는 知性이 아니라 來日의 無限한 가능성을 향하여 자기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勉學에 전념해야 하는 世代입니다。

따라서 제군의 學究的이며 사색하는 자세는 個人生活에서 만이 아니라 集團生活에 있어서도 언제나 유지되어야 하고, 또한 최고의 價値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先祖들이 슬기롭게 守護하고 발전시켜온 祖國과 선배들이 지켜온 大學을, 먼 후손들에게 떳떳이 물려주기위해서 제군은 국가민족과 大學이라는「大我」를, 모든일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면서 오늘에 조급하지 말고 오로지 泰山不動의 결의로 感傷的이기 보다는 냉철한 理性을, 放漫보다는 질서를, 게으름보다는 勤勉을, 오늘보다는 來日을 향하여 跳躍하는 제군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학생제군의 家庭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글을 보내는 바입니다。

一九七五年 四月

## 學生會 豫決算案 통과

### 8日 代議員總會

### 一期豫算 5百餘만원

75학년도 代議員 제1차 정기총회가 지난 8일 오후3시반 學生會館3층 제1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총회에서는 總學生會75학년도 제1기 예산안 總額 5백7만원과 총액 4백5십8만2천6백원의 74년도 제2기 결산안을통과 시켰다。이날 총회에서 尹석순(정외·4) 총학생회장은「학원사태등 학생활동에 제약요소가 많았다。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활동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鄭允武 신임학생처장및 金한종학생과장의 신임 인사말이 있었다。

이날 총회는「단대자치제」등 總會前에 떠돌던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채 이날 7시경 모두 끝났다。

다음은 통과된 75년도제1기 예산안 내역이다。

▲총무부=16만6천9백8십원▲학예부=15만5천원▲공보부=18만7천원▲봉사부=13만5천원▲농어촌연구부=14만5천원▲응원부=1만5천원▲불교대=14만원▲문리대=16만원▲법정대=13만원▲경상대=14만1천원▲농림대=14만2천원▲사범대=15만원▲공과대=15만5천원▲여학생회=15만5천원▲교양학부=12만원▲축제=1백35만원▲기타 수용잡비및 보조비=1백27만4천6백원▲예비비=34만8천6백10원。

## 企劃委員추가委嘱

### 김성배박사등4名

李瑄根총장은 지난 12일 총장직속 자문기관인 企劃委員會 委員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기획위원회는 常設기구로서 기획실에서 그 운영을 맡게 되며 任期는 2년이다。

한편 李總長은 지난달 31일 李哉昌교수등 8명과 3處長, 기획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는 12명의 기획위원을 위촉한바 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성배(당연직·圖書館長) ▲河德模(〃科學館長) ▲金熙圭(文理大교수) 韓炫(경상대교수)

## 石灰岩洞窟 등 發見

### 江原道溟州 生物學的 성과至大

洞窟探險部

洞窟探險研究部(部長=朴鍵·農學3)는 지난 4월4일부터 사흘간 독별春季洞窟探査를 실시, 국내유일의 박쥐化石을 비롯, 아직도 石筍의 生成이 계속되고 있는 동굴 2개를 새로이 발견하는 成果를 거두었다。

江原道溟州郡石屛山(1040m)에 위치한 2개의 동굴은 이번에 새로 발견됨으로서 東쪽 능선에 있는 동굴을「東大洞窟」、남쪽능선에위치한 동굴을「범녹굴」이라 命名했다。

東大洞窟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박쥐화석이 발견되었는데 中生代초기인「트라이아스」期(약2~3억년전)에 생성된것으로 추정됐다。

主窟과 가지굴을 합쳐약 3百80m에 달하는 東大洞窟은 아직도 鍾乳石과 석순의 생성이 계속되고 있어 그 보호가 시급한 형편이다。이 동굴에서는 박쥐화석이 발견된 외에도 眞洞窟性 생물인「등줄굴노래기」(길이3~4㎝)가 7마리채집됐다。

또 古生代 후기 朝鮮系지층에서 약 4~5억년전에 생성된것으로보이는 범녹굴은 길이약1·2㎞에달하는 거대한 동굴로 토끼털, 박쥐등 여러가지 박쥐류와등굴생물이 채집된외에 동물의 뼈가 발견되어 考古學的인 학술연구가치가있다。

범녹굴은 內部도 다양하게 생성되어 6개의 수직굴을 포함하고 있으며 막장에는 長幅30m, 短幅10m, 깊이 2·5m의 호수도 이루어져 있다。

한편 범녹굴은 수직면과 약15도의 경사를 이루어많은 낙엽이 부엽토를 형성, 풍부한 生物群을 가지고있어 희귀종인 토끼털박쥐와「록둑이류」1종,「굴지네류」2종,「노래기류」1종등을 채집했다。

또 入口로부터 3百m지점 수직벽에는 이미 화석화된 동물의 발톱자국이있으며 밑에는 그 동물의뼈로보이는 몇개의 뼈도발견되어 學界의 관심을 끌고있다。

한편 이번 특별탐사는지도교수 金興培박사(農林大)와 본연구부원 9명이 참가했으며 한국방송공사 TV局도 동행, 이번 탐험활동을 모두 촬영하여 지난 10, 11일 양일간에 걸쳐방영했었다。

본동굴탐험연구부는 이번에 발견한 2개의 동굴을 관계당국에 보고, 천연기념물 보호신청을 낼 예정이다。

## 기원학사、白象院

### 補修工事마쳐

李瑄根총장의 특별지시로 기원학사(舍監=李哉昌교수)와 白象院(원장=金雲學박사)이 봄철을 맞아 보수공사를 했다。

기원학사는 지난4일부터 10일까지 총경비 2백여만원을 들여 上下水道, 전기장치, 화장실등을 수리하고 건물내외 벽면을 새로 단장했다。

또 白象院은 목조단층3동으로 되어있는데 같은기간에 50여만원의 경비를 들여 각 방마다 온돌을 완전改修하고「페인트」로 새로 단장했다。

이번 改修는 李總長이수차 기원학사와 백상원을시찰, 특별지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 運營委員등 위촉

### 學生指導研究所 規定 改正

企劃室(室長=閔丙天博士)에서는 지난4月1日 카운슬러制를 전문상담원으로바꾸고 助敎制를 두는등 學生指導研究所규정을 일부개정했다。

개정된 規定에따르면 연구소의 운영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두고 相談部와 生活指導部를 두도록 했으며 간사, 專門相談員및 助敎를둘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원및 부장의 위촉은 本校 專任敎員 중에서 所長의 提請에 의하여 總長이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本研究所의 모든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李瑄根總長은 지난 21일 鄭允武所長(學生處長겸임)의 提請에따라 運營委員 9名과 相談部長, 生活指導部長및 助敎를 위촉했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規定改廢, 예결산심의를 맡게 되며 相談部는 學生生活의 조사연구, 심리검사및 相談을 맡고, 생활지도부는 職業선택등 학생생활 전반문제를 관장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운영위원및 相談部長, 生活指導部長은 다음과 같다。

◇運營委員=▲金雲學(佛大교수) ▲張漢基(文理大교수) ▲趙旺基(經商大교수) ▲李秉東(農林大교수) ▲權鍾東(工大 교수) ▲崔世和(師大교수) ▲金福善(敎養學部교수)

◇相談部長=▲崔世和(운영위원겸임)

◇生活指導部長=▲趙旺基(운영위원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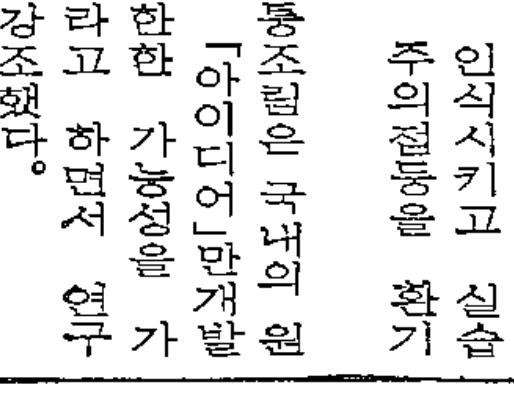
◇助敎=李鍾錫(同門·行政大院卒)

## 行政大學院 학생회장에 段昌昕氏

### 副會長 4名포함, 任員改選

行政大學院 學生會에서는 지난14일 同大學院「세미나」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결산보고및 경과보고를 갖는 한편 임원을 改選했다。

이날 임원 선출에서 명예회장엔 林炅燮(國防行政專攻)씨를, 회장에는 段昌昕(開發行政專攻)씨를 선출하고 부회장에徐海善(安全管理)、許良道(人事行政)、崔南植(財務行政)、梁奉圭(敎育行政)씨등 4명을 선출했다。



◇段회장

◇新任員名單

▲명예회장=林炅燮(國防行政·해군준장)▲회장=段昌昕(開發行政·韓國生產性水原·華城·龍仁地區協議會부회장)▲監事=金台龍(財務行政)姜在寰(組織管理)▲總務部長=吳廷一(敎育行政)▲企劃部長=朴哉浩(開發行政)▲涉外部長=李圭山(財務行政)▲學術部長=宋德鎬(敎育行政)▲濟州學生會長=梁奉圭(敎育行政)▲濟州學生會名譽會長=高承昱(公安行政)(濟州學生會 임원은 지난3월14일 現地에서 선출한바 있음)

### 고침

6백6호 1면新入生代議員 記事중 李春鎬(工經)군은 黃鉉培(工敎)군의 잘못이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時事英語研究 5月號 값 400원

□ 世界的 大恐慌의 悲劇은 再演될 것인가?
〈Beyond Depression〉----by Alvin Toffler
□ 緊張완화가 平和는 아니다.
〈Detente May Be Stronger Than It Looks〉--by A. Fontaine
□ 知識人은 社会의 소금인가 逆賊인가?
〈French Intellectuals: Do They Serve a Purpose?〉--from Le Monde
□ 文学이 갈 길은 무덤 뿐인가?
〈Does Literature Have a Future?〉----by N. Podhoretz
■「님의 침묵」—韓龍雲과 Ingmar Bergman…… by Edward D. Rocksrein

新連載/英作文 講座
〈「英作文全集」연습문제 解説・解答〉
貿易英作文〈田英鶴〉/ 就職英作文〈金用珙〉
社説英作文〈全興俊〉/ 随筆英作文〈盧熙燁〉
留学英語 TOEFL 誌上 Test
第二外国語 現代 独逸語 誌上 講座
英語歌詞 Papa/I Honestly Love You ----徐丙厚
名演説 Churchill首相의対議会演説
考試英語 考試英語予想問題…呉済雲
映画台詞 BEN-HUR〈벤·허〉

英語世界 5月號 값 350원

이달의 主要記事
□한번 失手는 兵家常事
How To Turn Failure Into Success
□成功은 強한 衝動에서
How Much Can You Do?
□自我発見의 길
How To Be Your Own Best Friend
□幻想의 女神이여!
The Goddess of Fantasy

이달의 映画 골드 GOLD
英文으로 읽는 希臘神話
実力向上 連載講座 Time・Newsweek/ 会話/英作/名文章
教養記事 古典音楽/팝송/絵画/스포츠
大学소개 ―미시간大学校
巻末附録 現代日本語講座

Do-It-Yourself Column
○人気가 萬能이 아니니라
○언제나 精神的 防禦를 튼튼히
口碑文学: The Miniskirt
短篇: A Week in Venice (베니스의 恋歌)

大学4年의 英語 공부는 時事英語研究・英語世界와 더불어
大学生을위한 보너스附 定期購読会員大募集

보너스 및 特典
★ 1年 定期購読会員에게는「Little 英英辞典」이나「英文法辞典」중 하나를 드림.
★「時事英語研究」1年分 4,800원을 4,500원에「英語世界」1年分 4,200원을 3,900원으로 割引.
★ 大学生 定期購読会員에 한하여 代金을 割賦로 해 드림.

신청방법
(가) 서울市内讀者는: (1) 本社 판촉부 (29-6624~5)로 電話申請하실 수도 있고, (2) 귀하를 방문한 本社 직원에게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3) 本社에 직접 나오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읍니다.
(나) 地方讀者는: (1)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対替口座 521393番으로 송금하실 수도 있고, (2) 우체국 현금봉투를 이용「서울光化門局 148号」로 보내셔도 됩니다.

時事英語社 서울特別市 鍾路区 貫鉄洞 5의3 申請電話 (29) 6624~5

韓国 最初의 소리나는 雜誌 (每月初「時事英語研究」와 同時에 全国書店에서 発売)
月刊 時事英語 카세트 5月号
● Churchill 首相의 就任 첫 演說―肉声
● 放送뉴우스는 正常速度와 느린 速度로 2回 録音
● 海外進出者를 위한 TOEFL 英語 聽取力테스트
● 映画 Ben-Hur (벤허)/英語歌詞研究/現代人의 英語会話
C-60 카셋트 테이프 1개 값 2,000원 (Text제외)
1年 定期 購入時는 20,000원에 (割賦可)
時事英語社 (29) 6624~5

**社說**

# 學園正常化와 學生

만물이 소생 약동하는 새 봄과 더불어 우리들은 새 학년을 시작하여 오래간만에 캠퍼스에 다시 모여 여러가지 의욕적인「플랜」들을 세우면서「아카데미」의 언덕에 知性의 꽃을 피우려 몇번이나 다짐했다. 헌데 꽃샘하는 봄바람인양 난데없는 疾風이 몰아닥쳐 다시 또 知性의 문을 굳게 닫고 학생들은 가정학습에 들어 갔던 것이다.

이제 사나운 熱風도 잠자려 함에 즈음하여 23일부터 4학년만의 일부개강을 시작하게 된것은 不幸중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大學의 문을 다시 열고 학생들이 이 東岳의 眞理의 언덕으로 다시 찾아 오게되었다는 意義는 자못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첫째로 이번에 全面개강에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부분개강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학교당국으로서는 여러 각도에서 신중히 고려한 끝에 결정한 일임을 학생들은 이해해주어야할 것이다.

둘째로 이번 개시한 部分개강이 언제까지 부분개강으로 머물러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 部分개강은 조속한 시일내에 全面개강으로 直結시켜 擴大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확대作業에 성공할 때 비로소 陽春의 꽃들과 더불어 이 眞理의 동산에서 歷史를 창조한다는 대학인의 知性의 꽃이 만발하게될 것이다. 이 확대작업에 성공할때 이번 개강의 목적을 달성할수있을 것이며, 만약 이 작업에 실패한다면 상아탑의 갈곳은 암담할 뿐이라 할 것이다.

세째로 近代國家에 있어서 대학은 그 내면에 있어서 自由精神을 품고 출발했다. 그것이 政治的으로 自治를 강조하는데로 나아갔다. 그러나 일찌기「헤겔」이 정확히지적했듯이 自由는 자의로부터 명확히 구별해야할것이다. 대학의 自由는건전하고 냉철한 理性을 발판으로삼아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그동안 가정학습 기간중 열띤 기분을 식히고 대학인답게 현명한 理性을 되찾았으리라고 짐작한다. 두번 다시 이 眞理의 동산이 感性의 熱風에 휘말려서는 아니될것이다. 學園이 다시 正常化되느냐 못되느냐하는 것은 오로지 학생들의 마음가짐과 노력여하에 매어있다고할것이다.

企業은 죽더라도 企業人은 살수있다고 하지만 大學이 죽고 知性人이 살수는 없을것이다. 상아탑은 학생들의 眞理의 원천이요, 民族의 文化의 근원이다.

大學을 논할때 누구보다民族을강조한학자는「헤겔」과「피히테」였다. 거기에서 말하는 民族은 바로 國家로 옮겨 놓을수 있다. 발전단계로 보아 한국의 대학을 논할 때 여전히 國家와 民族을 앞세워야할 것이다. 학생들이 지난번 가정학습에 들어 가던 때에 비할때, 韓半島를 둘러싸고 눈부시게 격변하는 이순간의 국제정세는 국가의 安危에 대한 적신호를 비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냉정히 주목하여야될 것이다.

요며칠 사이에 印支半島에서는크메르가 共産軍에 항복하고 越南도 首都사이공이 함락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사태를 유리하게 이용할 속셈으로 金日成은 北京을 방문하여 무력남침을 도발하지 않을까 걱정이되고있다. 이것은 6·25 사변 전야의 위기를 재현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두려운 사태이다. 국가의 보위없이 大學이 있을수없고 민족의 평화없이 진리를 탐구할수없을 것이다. 일단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학생들은 국가를 방위할 중책을 걸머지고 있는것이다.

대학의 사명은 평상시에는 지성의 전당이지만 국가가 위기에 빠진때에는 국방의 간성이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세계정세의 급변하는 양상에 비추어 본다하더라도, 학원의 정상화는 꼭 실현되어야함을 학생들 자신이 자각해야할것이다.

우리는 대학을 가리켜 知性의殿堂이라고 자랑한다. 학생들이 강의실에모여 열심히 공부할때 비로소 대학은 지성의 꽃과 진리의 보석으로 장식될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勉學雰圍氣를 조성하지 못한다면 지성의 전당은 野性의 枯葉으로 물러버릴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惡夢에서깨어나 다시 이 知性의 동산에 찾아왔다. 祖國이 당면한 오늘의 難局은 젊은 大學人으로 하여금 現實의 雜多함에 사로잡혀 학원의 면학분위기를 깨고, 상아탑이 原始的 황폐속에 주저앉게 해서는 안될것이다. 학생들은 現下의 급변하는 祖國의 難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잊지말고 학원정상화의 국가적 至上命令에 自律的으로 보답할 각오를 새롭게해야할 것이다.

---

# 共産國心理戰略의 本質

鄭允武〈學生處長·政博〉

○…心理戰이란 用語는 使用하고 있지 않지만 그重要性을 가장 잘認識하고 있는 것은 소련이라 할수 있다. 소련의 心理戰은 現代에 있어서 가장 強力한 組織과 手段을 가지고 人間의 心理를 刺戟시키고 있는것이다. 第2次大戰後의 「冷戰」이니 「平和共存」이니하는 것도 모두 소련의 態度에 대한 美國의 對應方式의 關係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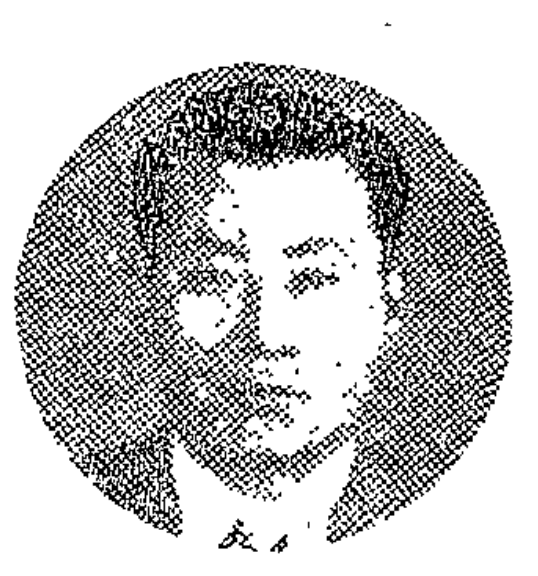
## 政治機構·外交,그 自體가 心理戰

### 一、革命戰略과 心理戰

세계 혁명론에 의거한 공산주의혁명의 전략전술은 다른 전쟁과는 달리 혁명달성후에도 전시체제를 요구하며 지역적으로는全地表에 걸치며 정치 경제 문화등 모든분야의 수단을 구사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에대하여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문제를 분석하고 각발전단계를 설치하여 투쟁의 목표형태 조직슬로우건의 선정등 면밀한 작전計劃을세우는것이그특징인 것이다.

공산국가의 이러한 혁명전략및 전술은 바로 心理戰 그 자체라고 할수있다. 흔히들 共産主義者는「말의 魔術」로 大衆을 끌어 당기고 있다고 하지만「말」뿐만 아니라「행동」을 同伴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행동은 조직의 행동이어야만되며 그곳에는 軍事的 전쟁과 정치적 전쟁간의 相違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행동의 제일보는 행동대원을 획득하여 훈련된 투쟁조직의 中核을육성시키는데서 비롯한다. 「原始細胞의 創造」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찬동을 나타내는 편에서 전면적 찬동이 기대되는 前衛에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리하여 모든 일을 견디어내며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필요하다면 온갖 종류의 謀略, 非合法的 手段, 虛僞, 詐計를 서슴치 않고 사용할수 있는 同志가 여기서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지의 넓이를 전세계에 조직적으로 확장시켜 世界革命의 최후의 승리에 도달하려고 하는것이 共産國家 心理戰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며 방향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공산국가의 심리전의 本質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통속적인 개념으로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오류를 범하게 마련인 것이다.

### 二、共産國家의 情報와 컴뮤니케이션

소비에트를 비롯한 사회주의제국에서도 정보와 그것을 전달하는 컴뮤니케이션의 존재가 사회생활에있어서 死活的인 의미를지니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할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 제국에서도 서방측과 마찬가지로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처리, 전달하는 매스컴산업이 사회생활가운데 커다란 역할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매스컴産業을포함하여 매스 미디어에 의해 보내지는 정보가 과연 정확한 정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개인이 판단한다는것이 극히어려운일인것이다.

다시말해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정보를 조작할 경우, 개인이나 사회의 行動을 좌우하는 것도 가능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社會主義 국가의 경우 매스 미디어는 原理的으로 黨과국가의 독점적 지배하에 있어 정보의 조작에 의해 국민을 一定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것이 제도화되고 있다는것이 무엇보다도 커다란 특징이 되고있다.

이와같이 共産國家에서는 社會主義革命의 달성과 그유지를 위한 필요에 의해 정보를 통제한 일련의 현상이 모두 전술적인관점에서 규정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정보나 컴뮤니케이션은 혁명세력의 조직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소비에트의 新聞論에서 『반드시 인용되는 신문은 集團的 宣傳者및 集團的 煽動者일뿐만 아니라 集團的 組織者이기도 하다』라는 슬로우건이 있듯이 사회주의 국가의 新聞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든지 解說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선전하며 선동하며 조직하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신문의 몇가지 성격을 規定지을 수 있다.

①신문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노동자의 이익에 적합하며 사회주의 제도를 강화하는 한도내에서만 보장된다.

②신문활동에 있어서 객관성은 혁명의 목적이나 당, 국가의 이익, 또한 당이 대표하는 노동자의 이익을 촉진시키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말」「行動」의 組織的 心理戰과

### 報道는 정책과 輿論形成 도구

## 閉鎖的 社會에 효과적 戰略

③뉴스란 기본적으로 社會主義建設의 과정, 進步的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일반적 노력을 의미한다.

④사건보다는 사회과정이 중시되므로 西方側 저널리스트만큼速報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

⑤뉴스에 있어서 인간에의 관심도 서방측의 신문에서의 대통령의 性癖이나 스타의 私생활과같은 개인에의 관심이 아니며 우수한 노동자라든지 영웅적인 모친과 같은 사회적 운동의 심볼로서의 인간에의 관심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共産國家에 있어 신문을 비롯한 報道機關의 동향은 무엇보다도 黨이나 국가의 정책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매스컴이 일체가 되어 輿論形成이나 大衆動員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는 당이나 국가의 정책전환이나 조그마한 변화에도 매스컴은 충실히 또는 민감하게 反應하여 국내외에 알린다는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련의 심리전략의 수단으로서 매스컴보다는 퍼스널컴뮤니케이션을 重視하는 전통이있다.

이것은 매스 컴뮤니케이션의 한 자극은 아무래도 一般的이며 表面的이 될 우려가 많은데 대해 퍼스널 컴뮤니케이션에 의한 설득은 확실성을 保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국내에 있어서도 유지가 「아지테이타」라 불리워지는 「政治科學知識普及協會」와 같은 半政治宣傳 組織에 소속하여 자기의 주위에 있는 그룹에 대해 설명, 설득의 役割을 단당함으로써 人間的 접촉에 의해 대단히 커다란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總數는 약 2백만이라고 하며 긴급시에는 이 數가 7백만까지 증가된다고 한다. 소련市民의 대다수가 어떠한 형태라도 대중조직과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政治教育의 조직을 그대로 선전 계몽의 조직으로 이용할수 있어 이점 全體主義國家의 利點이라 할수있다.

### 三、國際共産主義 戰線의 本質

오늘날 우리가 알고있는 공산주의戰線의 조직망은 2차대전이후에 출현한 것들이다. 이들의 조직 원칙은 8분의1은 해상에 나타나고 8분의7은 海面下에있는 빙산과 같은 것이며, 연합과 발전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설립당시에 이조직들이 비정치적이며 비당파적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공산주의자의 진출에 반응을 보이지아니하거나 소련의 정책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을 끌어들였던것이다.

국제전선은 그 간부조직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조직의 간부가 他조직의 간부를 겸하는 것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 戰線의 주요한 자리와 소련및기타 共産圈의 당원들이 차지한다. 사회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저명인사를 끌어들인 國際戰線은 회원은 많으나 명확한 증거는 찾기 힘드는 것이다. 모든 전선은 회원의 수, 또는 지도성에 있어서도 모든것을 東部陣營에 의지하고있는 것이다. 西歐社會 또는 중립국의 회원들은 선전가치를 제외한다면 아무런 重要性도 없다는 것이다.

共産전선을 지지하는 개인은 네 범주로 분류할수 있다. 첫째 공산당의 公式黨員, 둘째 기록, 또는 기타의 證據上에서만 회원으로 나타나는 共産主義者, 셋째 비밀당원으로서 또는 공산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黨規律을 수락하는 者, 넷째 會員들의 이익을 위하여 戰線이 결성되는 경우, 즉 순진한 회원 등이다. 純眞會員들은 조직의 目的, 주최자의 名聲에 매혹되어 가입하며 共産「불럭」또는 소련에서온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加入한다. 純眞會員은 社會와 자신을위한 政治綱領을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교육받는다. 그들은 첫째, 둘째, 셋째범주의 인사들에 의하여 政治的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극구 부인하면서 빈번히 대중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國際共産主義가 內外에 있어서 그 활동의 매개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團體나 組織機關이나 基地는 잡다하며 또한 서로 얽히어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을 파악하거나 혹은 非共産世界에 던져지는 위험의 크기를 평가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前 서독연방정보부장 「게헬렌」에 의하면 모스크바의 世界活動의 매개수단 支援組織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1개의 소위 國際 위장간판조직이라고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기묘하게 위장되어 대규모의 工作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統轄되며 자금을 받고있다. 또한 수억의 회원을 포섭하고 있으며 多種多樣한 組織과下部組織으로 나누어지고있다. 이들을 돕는 것으로서 각종海外機關이 있으며 地下基地나 統制援助點으로서 活動한다. 이들기관은 거의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政治活動을 行하는 能力을 가지고있는데 주로 다음의 범주에속한것이 내포되는 것이다. 즉 共産國外交公館및 기타 通商代表部가 通商機關, 共産諸國의 技術顧問團등의 公式機關, 共産諸國의 정부자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海外의 學校, 病院등의 準公式施設, 그리고 合法 非合法의 共産側 비밀조직의 居留地와 기관으로서 그 古典的스파이 활동은 그 活動의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 團體·組織·機關은 여러가지 수단이나 戰術로써 캠페인이나 工作을 행하는데 어느경우에 있어서도 非共産國의 政治 社會體制를 전복하며 그 국가적 잠재력을 약화 혹은 파괴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 조직은 또한 西方측에 있어서의 각종의 사건에 관련된 中傷캠페인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 지구 전체에 뻗쳐있는 측수의 그룹속의 다수의 조직을통하여 소련 지도부는 대단히 기민하게 하나의 캠페인에서 다른 캠페인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戰線의 성격을 잘보여주고 있는 것은 1950年代初 한국전쟁 당시에 세계의 여론을 들끓게 하였던 細菌戰宣傳인 것이다. 이것은 수천수만을 동원한 대대적인세계적 선전이었던것이다.

### 四、結論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共産國家의 政治外交 그 자체가 곧 心理戰이며 또한 心理戰機構라고 할 수있다.

더구나 黨과 政府와는 다른組織體이지만 最高幹部는 사실상 일체를 이루고있어 心理戰의 面에서 볼 때 黨의 命令指揮와 같이 통제받는 활동이 획일적으로 행해질수 있다는 點에서 효과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活動은 이른바 폐쇄적인 社會에선 확실히 效果的인것이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公式의 見解를 철저히 터득시키기 위해선 일정한 「슬로우건」을 되풀이함으로써 비교적 가능한 것이다. 소련과 같은 閉鎖社會가 아닌 국가나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활동이 통용될 것인가가 커다란 문제점인 것이다.

결국 共産國家의 心理戰術의 效果는 目標社會가 다음 세가지 條件下에 있을때 크게 발휘된다고 한다. 첫째 그「메시지」를 믿으려고 할 정도의 社會的 不正이나 經濟的 곤궁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그 선전이 대량적이고 강렬하여야 된다는 것이며, 끝으로 실상과 허상의 識別力이 결여되고 있던가 혹은 식별력은 있어도 識別하려는 輿論이 결여되고 있다는것 등이다.

共産國 心理戰 공격의 목표는 이 조건을 고려한다면 파악하기 쉬운 것이다.

흔히들 共産國家의 心理戰의 유일한 무기는 단지 「말」뿐인양 共産圈의 선전활동을 분석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공산당은 많은 심리적 무기중에서 그중 한개의 무기인 언어를 교묘하게 사용할 뿐이다.

非共産國家에 대해선 敎化, 組織, 浸透, 策略및 강요등의 수법으로써 활동하고 있다. 공산국가에대한 그들의 심리전활동은 기정사실에 대하여 견고히 하고 강요와 설득을 調和시키며 공산당계획에 필요한 共産式 人間改造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共産國家의 最强의 동맹자는 平和時에 있어서 心理戰을 좋아하지 않는 우리의 심리상태 바로 그것인 것이다.

그들의 심리전은 이미자유사회 특히 경제적으로 후진상태에놓여있는 국가들에 깊숙히 파들고있다. 전시나 평화시를 막론하고형식적인 차이는 있을망정 共産黨의 총공격에대한 대책은「말」을 가지고서는 안되며 또한 모든말을 다한다 하여도 대응할수가없다는 사실을명심하여야될것이다.

---

**大學閑話**

## 愛·커·家

李載昌〈佛敎科 敎授〉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즐겨하거나좋아할때에흔히「愛○家」라 指稱한다. 예컨데「愛煙家」니「愛酒家」니 또는「愛犬家」니 하는 따위이다. 이러한 指稱은 그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그 행위에 대해 헐뜯는다던가 내려깎는 뜻은 전혀없고 오히려 그것을 美化하는 愛稱的인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한편이와 비슷한것으로「○○家」라는 것이있다.「登山家」「旅行家」등이 그것이다.

나는 하루에 한갑반 정도의 담배를 피운다. 1951年부터 피우기 시작하여 보통 하루에 한갑이면 족했던것이 3、4년전부터는 한갑반이 되었다. 따져보니 그럭저럭 25년이란 동안 중단한일 없이 계속해 왔다.

담배맛도 어지간히 구별할 줄알고또 평상시에 피울때에도 맛을 음미하면서 피우기 때문에 누가나에게「애연가」라 지칭해도 달게받을 용의는 있다.

또 여행과 등산도 사원순례와 불교문화재 답사때문에 일찌부터 시작하여남 못지않은 年輪을 갖고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여행과 등산은 내가 살아가는 보람을 거기서 찾을수있을것을 확신하고 있는터라 누가나에게「여행가」니 또는「등산가」니 해도 굳이 사양할 생각은 없다. 그렇다고 누가나에게「愛煙家」니「旅行家」니 또는「登山家」니 하는 指稱을 안해 주어도조금도 서운한 생각은 없다.

그러나「愛커家」란 지칭이 없어 누가 나에게「愛커家」라 해주지 않는것은 웬일인지 좀 서운하다. 내가 커피를 本格的으로 마시기 시작한것은 1950년 釜山避難때부터의 일이다. 그때에는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서로 生死를 모르던 친구를 뜻밖에 만나 반갑게 얘기를 나눌수 있는 곳이 다방이요, 단간방 避難살이인지라 저녁이면 책을 옆에끼고 찾아가던 곳이 다방이었는데 다방에가면 의례히 커피를 들곤 하였었다. 이것이 그대로 습관이되어 지금도 매일 예닐곱잔의 커피를를 들고있고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전에는 커피를 한잔 들어야 잠이 잘오는 體質이 되어 버렸다.

특히 머리를 짜내어 글이라도 쓰게되면 體內의 커피수요는 倍增되어 방한구석에 커피 포트를 놓아 두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었으니 이러한 자신을 돌이켜 볼때 정말「愛커家」라 자부할 수 있을만한데 왜 세상에서는이렇게 부르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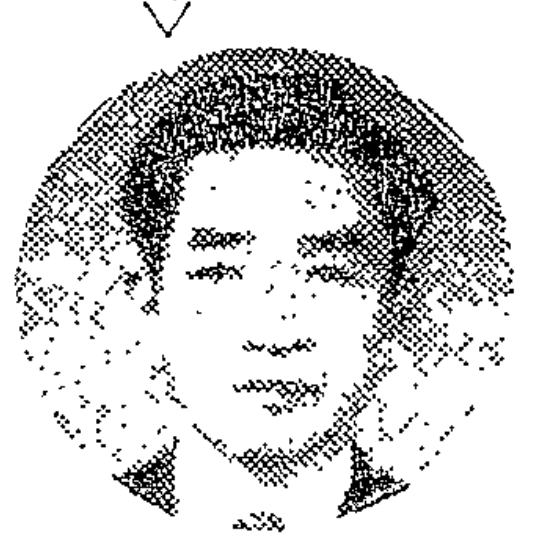
---

# 社會環境과 科學技術

## —物性科學을 中心으로—

**學界의 集矢**

金熙圭〈文理大교수·理博〉



### 研究開發·教育目標 설정 중요

### 技術革新政策 再檢討를

### 1、研究開發의 意義와 目標

현재의 科學기술이 직면하고있는 문제의 하나로서 『眞理의 추구라는 자기목적적인 科學』『GNP 증가나 중요한 物質文明의 추궁과 욕구를 충족해주는技術』이라는 存在理由는 自明한 事實로서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點이다.

1960年代初까지의 소위 技術革新의 高揚期에 지배적인 科學技術者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연구개발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떤 형식이든 人間과 社會에 공헌된다는 소위 써즈先行的인 정책이 가지고 온 여러가지 피해, 파괴와 社會환경의 不合理性등으로 1966년말 以來 社會와國家가 科學技術에 對하여 그 解決을 期待하고 있는 사실을 明確하게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가장 合理的으로 科學技術을 적극적으로 방향하여 추진하는 니즈先行的인 政策이 強力히 요구됨에 따라 연구개발 및 敎育의 目標設定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公害對策등을 포함하여 近年 論議되고 있는 소위 社會的 國家的 니즈的인 정책이 目標設定과 政策施行에 있어서 短期的이고 速決的인 觀點에서 取하여지고 있지는 않은가 두렵게 생각된다. 그 내용면에서 近視眼的일때 결국은 과거의 되풀이밖에 되지않는다. 니즈先行的인 연구계획의 대표적인 事例로서 引用되는 미국의 RANN (Research Applied National Needs) 계획에서도

①環境시스템과 資源問題 ②社會시스템과 資源 ③고도의 技術應用등의 指定, 그밖에 ④연구자의 자발적인 제안과 능력이 평가 인정되고 있다. 니즈선행型의 정책이 강조되는 나머지 기초연구나 과학기술교육을 포함하는씨즈培養型의 연구개발을 지나치게 약체화하는 사실은 장래 과학기술의 중요한 잠재적 가능성과 저력을 짓밟은 위험성이 많다는것이 識者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中共貧油論을 打破하고 大慶등 새로운 油田發見에 引導한 理論은 李四光(1971년)의 地殼運動의 物理的 법칙을 연구하여 地層의 沈降帶가 石油의 生成과 貯溜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밝힘으로 石油富國으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기본적인 底力 培養없이는 불가능한것으로 느껴진다.

### 2、科學技術革新의 움직임

현재 세계에서 대규모적이고 첨단적인 과학기술개발분야로서 原子力의 이용과 인공위성에 의한 우주개발등을 예로 들어 보자. 즉 ①兩者는 학문기술의 대단히 넓은 분야의 종합으로 이루어지고있다. ②共히 극한여건에 견디는 새로운 재료개발에 얽혀진 바가 대단히 많다. 학문기술의 넓은분야의 종합이기때문에 逆으로 넓은 범위의 학문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 과학과 기술이 상호작용하면서 漸進的이라기보다는 비약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기술革新이라고도 불수있다. 과학과 기술의 관계, 재료와 설계, 기술과 사회, 이런것의 상호관계가 밀접화하고 迅速히 반응하고 영향을 주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현대의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서구의 우수한 금속 화학 기계등의 기본적인 기술에 미국의 전자공업량생산기술을 가미 소화하여 비교적 단시일에 強固한국제 경쟁력을 갖춘 隣國 日本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니크송 쇼크 이래 국내 수급의 갭, 수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장래 경제정세의 불투명 가운데 우리산업계는 많은 분발이 요망되고 있다. 금후 우리나라에 요구되고 있는 기술개발의 방향은 전환되고 있는 이나라의 경제사회의 니즈와 새로운 수출질서에 대응되는 기술을 만드는데 있다. 냉엄한 국제기업화 시대에서 독창적 기술의 발견및 육성에는 부단한 검토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연구투자의 분산성 연구태도의 단기결전형등은 또 하나의 저해요소가된다고 본다.

### 3、科學技術敎育의 改革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교육 연구소등의 연구는 硬直生理를 면치못하고 있다. 연구개발의 프론티어의 급격한 전개에 대해서 십분 대응할수없는 실정에있다. 설사 프론티어의 전개에 수반하는 간격을 메우는경우에도 낡은조직은 온존하면서 속속히 새로운 연구소, 학과를 만드는 安易한 수단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방법은 조직중의 化石化하는 부분을 늘리는 결과로되어왔고 많은 모순에 직면되고있다.

이러한 점을 정정하는 방향으로서 ①學科 강좌제라는 연구교육의 영역을 극단으로 전문분화하는것을 지양하고 ②장래 어떤 전문영역의 일을 하더라도 그의 대응되는 목적 지향적인 기초교육은 중시하는 교과목을 편성한다는 의견이 있다. 장래의 과학기술의 발전의 동향을 생각할때 광의의 하드웨어를 대상으로하는 종래의 전통적인 이공학을 넘어서 소위 소프트·사이언스의 영역이 또한 중요하게 되는 경향이있다. 아직 이분야는 그학문체계에 있어서 발전도상에있고 금후의 검토를 기다리는 여지가많다.

政策科學, 行動科學, 시스템科學등을 포함하는 이 領域의 研究教育體制의 정비는 긴급을 요하는 課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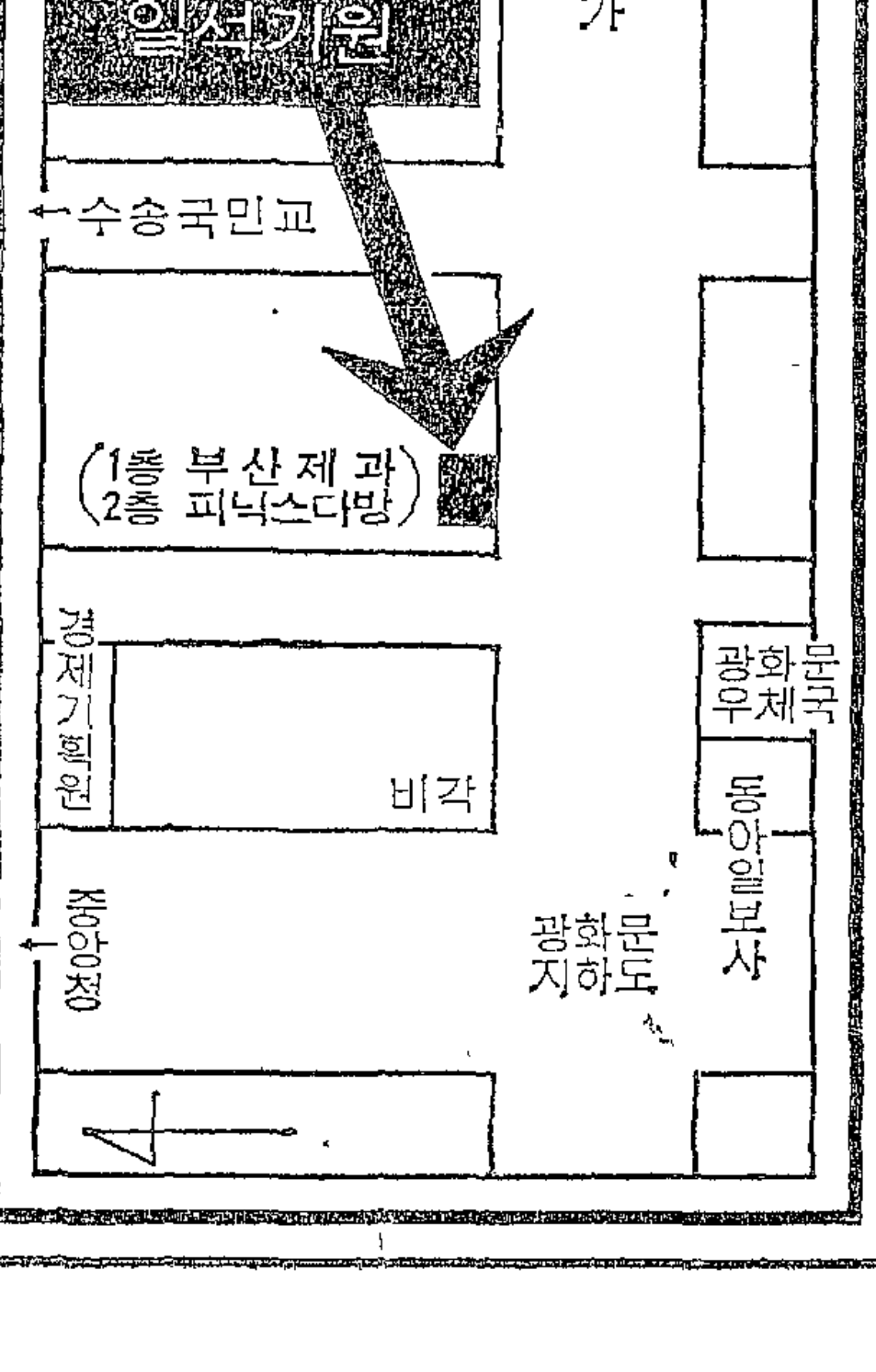
價値觀의 多様化와 研究開發의 목표설정, 社會開發을 위한 개발연구, 現代生活과 技術의 哲學的인 배경등 人文 社會 理工學系의 共同 關心事가 高度技術革新이 이루어 지고 있는 現時點에서 愼重히 檢討가 되어야한다.

---

개강 5月 1日
새벽·오전
오후·저녁
留學班
會話班
英作文
英文解釋
三位一體
考試英語
時事英語
文法및解釋
商業英作
TOEFL
DIGEST
TIME
AFKN
Word Power
Vocabulary
國史
時事論文
初級日語
中級日語
高級日語
다이제스트
日語會話
獨語文法
獨文解釋
獨語會話
英語·日語·独語
수시접수
문의는(72)9226(74)2442
종로2가태극당옆삼화고속뒤
시사영어학원

現代를 사는
벙어리 知性의 苦惱와
그 조용한 몸부림
그리고 그 終末!
1965年度 韓國日報新春文藝當選作家
柳祐熙 短篇小說集
잃어버린 노래
◉收錄作品: 空白地帶 / 그들의 故鄕 / 不滅의 座 / 잃어버린 노래 / 流民 / 流星의 合唱 / 足跡 / 정말·거짓말 / 외길 / 影 / 夫人들 / 아카시아祝祭 / 밤바다에 나리는 / 後見人
「외길」…敎師라는 직업, 괴로움도 많고 박한 報酬에 불만도 많을 사람들이 그런 환경속에서 이만큼 슬픔을 처리해 보여주는 文學的 構圖를 設定한 作家에게 祝賀를 드리고 싶다. (中央日報) 作家·崔仁勳
「그들의 故鄕」軍隊의 非人間的인 「메카니즘」을 通하여 現實을 告發하는 또하나의 「휴메인」한 이야기다. 作者의 소리가 이처럼 크게 들리는 것은 命令만이 절대적인 威力을 발휘하는 軍隊의 「메카니즘」, 그러나 作者의 노여움은 단순히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다. (大韓日報) 文學評論家·洪思重
■4·6版 364面 / 비닐커버 豪華洋裝
■값1200원 · 1000部 限定版
全国有名書店 発売開始!
◉總販: 良友堂 73-2708 74-4292
종로2가 84(YMCA건너편)
現代文學社 發行

文學人의 휴식처
一石棋院 (전화75-1103)
〈바둑판의 王〉이라 일컫는 〈아가지스板〉과 쾌적한 안락의자로 단장된 一石棋院은 국내유일의 최고시설입니다.
棋友 그리고 文學同友 여러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文學선배들과 더불어 바둑과 휴식을 함께 즐겨주십시오.
一石棋院 主 千勝世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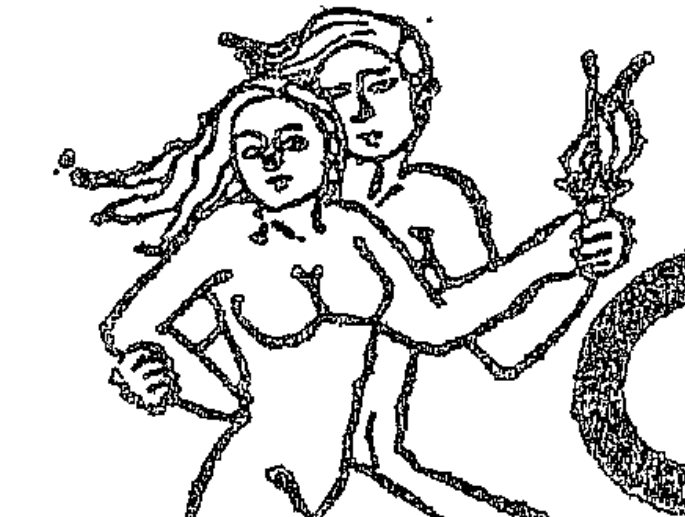


제196회
독일어 개강5월1일
—강의내용—
◎초·중·고급문법반 ◎독문해 연구 ◎초급독본·소설반 ◎Das Beste 강독 ◎회화 ◎과학독어
※본학원에서는 독일어만 강의합니다
독문화학원 (27)3569
구 을지극장—사이골목—을지로2가 네거리
을지로2가 합승정류장옆골목

【女】 특별할인(20%) 타자수강생모집
大學生·교양·사무·비서직·코스
무교동4거리↓수송국교쪽20m↓ 右로앞다방2층
【男】제44기 육군행정지원병 모집 (월별정원한 접수마감)
①자격·만17~26세미만 ②입대·소정교육후 원하는시기에입대 ③기타·복무년한일반병과동일(교련단축혜택)
육군참모총장위촉 제23호에의거모집양성
※공채및 승진시 가산혜택 접수
유니온타자학원 (73)4079 (75)9716

紛失廣告
채용옥 (승가과1년)
문창환 (사회교육과1년)
李東哲 (전기공학과1년)
方斗熙 (經濟科1년)
이돈혁 (행정과3년)
정원남 (경제과2년)
김봉임 (물리과3년)
조성대 (수학교육과1년)
李政基 (식공과1년)

안경은 시력검사따라
광신안경
신예용안과 1층 3·1빌딩광교中間
전화: 74-5559



커플에서 젊음의 멋을 함께…
COUPLE
coffee·snack
경보극장 건너편
27-6453

☆동문의 집☆
젊음과 낭만이 캠퍼스에 가득하시기 빌며…
행사기념 페난트·트로피·상패·각종 기념패
동양상사
☎ (27)7161~9 (25)8131~9 (교)365번
동문 조인실

# 東南亞사태와 韓半島

## 北傀妄想에 부채질

## 東南亞 세력 再編成기미

## 韓半島의 自主國防태세 시급

**金鎭福** 〈法政大敎授〉

◇메콩강 관측포대에서 「크메르 루즈」 반군에 공격을 가하는 크메로 정부군.

### 一、印支사태

自由「크메르」가 共産叛軍에 의해 全面 붕괴되었다. 또 越南의 首都사이공의 陷落도 경각에 이르렀다. 티우越南대통령의 돌연한 辭任으로 共産側과 協商의길이트인것 같으나 越南의 赤化 역시 시간문제로 남게 된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또한 印支三國중에서는 지금까지 小康狀態를 유지해오던 聯政「라오스」도 「파테트라오」共産軍의 새로운 攻勢에 직면하여 일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듯 印支半島는 全土赤化속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다.

이같은 印支상황은 全自由陣營에게 甚大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중에서도 北傀의 南侵危脅을 끊임없이 받고있는 우리의 충격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印支半島 赤化에 일단 성공한 共産主義者들의 다음 目標地點이 韓半島일것이라는 관측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을 뒷받침하는한 증거로서 北傀 金日成은 크메르의 함락과 때를 같이하여 中共을 訪問했다는 사실이다. 金日成은 이번 中共訪問을 통해서 中共으로부터 南韓赤化戰略에 관한 某種의 言質을 받아 내려고 온갖 術計를 다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깊이 유의할것은 印支赤化와 韓半島赤化를 동일시하거나 같은 차원에서 다룰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첫째는 地政學的인 차이점이다. 印支半島는 地政學上中共의 영향권에서 벗어날수 없는 요인과 배경을 안고있다. 본시 美國이 印支半島에 깊숙히 개입하게된 動機는 이른바 도미노이론에 근거를 두고 東南亞의 赤化防止를 위함이었던 것으로 안다. 그리하여 美國은 이지역의 集團安保體制를 공고히 다지기위해 印支半島의 越南과 크메르를 中共系 共産勢力의 南下침투를 막는 거점으로 삼으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美國은 이번 印支사태를 통해서 그같은 對共封鎖戰略에서 후퇴할수 밖에 없게 되었다. 美國은 그간 印支전쟁에서 10여년동안에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 5만5천명의 美軍 희생과 1천5백억불의 軍事費를 탕진했다. 그러고도 美國은 印支半島에서 손을떼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또한 美國이 印支반도에서 후퇴한다는것은 美國의 對東南亞 平和戰略의 전면적인 실패를 가져 왔다고볼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變化는 한마디로 불가사의함을 금치못하게 한다. 共産側이 월남휴전협정을 전면 휴지화하고 무자비한 軍事攻勢를 폈는데도 막강한 美國은 적절히 이에 대처하지 못했다.

또 美國의 對蘇및 對中共平和共存戰略에도 아랑곳없이 결국 印支 全土가 赤化될수 밖에 없다는 특수성은 무엇으로도 설명될수 없는 그 무엇이 잠재하고 있음을 直視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 판국에 새삼스럽게 美國의 對印支政策 혹은 좀더 폭을 넓혀 美國의 對東南亞政策 전반에 관해 잘잘못을 擧論할 필요는 없다. 또한 최근의 印支사태를 그 골로만 든 직접적인 當事者인 越南과 크메르측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조차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다만 거기서 얻은 여러가지 敎訓을 각자 나름으로 터득하고 共産侵略에 대한 對應姿勢를 재정비 强化하는 것만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印支사태를 냉철하게 지켜보아야한다. 우선은 印支사태를 現實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方向에서 東南亞의 사태귀추와 한걸음 나아가 韓半島安保문제를 再檢討함이 더욱 重要하다고 하지 않을수없다.

### 二、韓半島의 現實

문제는 포스트·인도차이나이후에 올 東南亞사태는 결코透明치도 않을 뿐더러 樂觀不許임을 먼저 認識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印支三國은 장차 모두 中共勢力下에 편입될 것이 분명하다. 과거10수년간 인지반도는 미국·소련·중공등 3강의 세력각축장이었다. 그러던 것이 인지적확로 미국세력이 빠져 나가지 않을수없게 되었다. 미국세력의 후퇴로인지반도 나아가동남아는 중공·소련등 두 공산거국의 각축장으로 화할 조짐이 보인다. 그렇다고 만약 중공이 이지역을 독점하려든다면 필연적으로 이 지역은 또 하나의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가능성이 충분함을 알아야한다. 도시 오늘과 같은 다극체제를 기축으로 하는 현 국제정치상황하에서 어느한강대국이 특정지역을 단독으로 지배한다는것은 용납되지않는다. 이것이 세력균형의 논리인 것이다. 주지한바 인지반도는 한반도못지않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서고 있는 특수지대이다.

이렇듯 特殊地帶에서는 이른바 强大國간의 勢力均衡論理가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새로운전쟁을 예방할수 있다고 보는것이다. 强大國간의 勢力均衡이야 말로 위험지대의 안전과 버금될수 있다. 하나의 반증으로서 美國이 印支半島에서 세력균형의 논리를 적절하게 운용했던들 그토록 비참한 後退는 면할수 있지 않았나 반성해 볼수있다.

그런 의미에서 印支半島에서의 미국세력의 후퇴는 印支戰爭의 종결이 아니라 바로 東南亞의 세력균형을 재편성하는 하나의 진통이라 할수있다.

따라서 印支사태의 赤化현상은 東南亞문제의 끝장이 아니라 東南亞의 勢力改編을 지향하는 再出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장차 東南亞의 勢力均衡은 어떤 方向에서 어떻게 進行될 것인가. 나아가 東南亞의 勢力改編은 어떤 형태로 形成되어 갈 것인가라는 점이 關心의 焦點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强大國간의勢力均衡 역시 韓半島에서와 마찬가지로 美·蘇·中共등 三强體制를 지칭한다. 혹은 東南亞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日本勢力을 添加하면 결국 四强體制로 形成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前述한바 中共이 단독으로 동남아를 獨舞臺로삼고자 企圖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오산일 것이다. 소련도 중공못지않게 이 지역에 대해선 저들의 전통적인 팽창정책에 입각하여 이른바 아시아 안보구상을 구준히 추진해왔다. 일본역시 미국과 제휴하에 경제적 측면에서 동남아로부터의 원료확보와 일본의 商品市場을 노리고있다. 그렇다고 미국인들이 이지역에서 그대로 물러설수는 없게 되어있다. 미국의 對東南亞政策의 발전책은 더욱 폭을 넓혀 갈것이 예상된다.

이렇듯 東南亞를 둘러 싼 4强간의 利害關係가 팽팽하게 맞서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이상 이 地域을 어느 누구도 단독 支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끝으로 문제를 韓半島安保로 集中시켜보자. 印支半島와는 달리 韓半島는 美·蘇·日·中共등 4强의 勢力均衡이 그런대로 적절하게 유지되고있다. 그런대 美·蘇등 4强勢力은 韓半島에서 勢力균형을 바탕으로 現狀凍結을 바라고 있는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印支半島가 저물이되자 韓半島의 세력균형은 흔들릴 조짐을 보여 주기 시작했다.

언필칭 韓半島를 둘러 싼 東北亞에서 불장난을 일삼는 問題兒는 역시 중공과 또 중공세력을 등에 업은 北傀이다. 印支半島의 全土赤化에 자극받은北傀는 이기회에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서둘려 덜 公算이 크다. 그러나 그것은 北傀의 妄想이요 誤算에 불과하다. 金日成이 중공방문시 여러모로 큰 소리 했으나 중공인들 金日成의 赤化妄想에 호락 호락 넘어 갈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姿勢如何에 따라 北傀의 對南赤化策動을 막을수도 혹은 저들의赤化野望을 불러들일수도있다는 사실을 銘心하지않으면안된다.

韓美共同防衛原則을 바탕으로 자주국방태세를 완성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때 北傀의 南侵을 받게될지 예측을不許한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내나라를 목숨으로 死守하겠다는 굳은 意志가 결핍된다면 美國과 또 우리 友邦들이 아무리 우리를 도우려 하더라도 이땅에서 제2의 크메르, 제2의 越南사태가 再版되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

# 祝典·學術行事에 치중

## 對話로 펼치는 總學生會 활동

尹錫彜총학생회장은 지난10일 본사기자와 회견을 갖고 지난해 2학기의 총단활동은 물론 5월 8일 개교기념일을 전후해서 개최예정인 동국축전, 75년제1기예산등 총단의 제반활동사항에 대해 피력했다.

尹총회장은 『이번 축전은 1백35만원의 예산으로 학술제, 예술제, 체육제로 대별하여 「행사를 위한 행사」를 지양하고 대학인의 내적충실을 기할수있는 행사를 위주로 하겠다』고 말하여 한정된 예산내에서라도 운영의 묘를 기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총단은 학교행정의 실무자인 課長과의 간담회개최도 구상하고있다고 밝혔다.

### 75年 第一學期活動

▲問=지난 74年 第二學期의 總團은 어떻게 運營해 왔는가?

▲答=2學期의 早期放學으로 모든 行事를 원만하게 추진하지못했다. 한마디로 活動不在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학생회 간부로서의 立場을 학생들에게 周知시키는데 주력했다고 할 수있다.

▲問=校內美化作業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는 方案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가?

▲答=지난 5日 植木日을 전후하여 總團은 6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校內環境美化作業은 계속 추진할 것이며 本校소유 林野의 生産性을 높이기 위하여 學生들이 직접 조림사업에 奉仕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問=「未來의 可能性 誠實한 大學生活로」 등의 「프레이즈」를 내걸고 勉學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全體學生들의 호응이 부진한 그원인은?

▲答=커리큘럼에 問題가 있는것 같다. 단적인 예로 敎養學部의 교과과정중에 社會科學과 數學이 빠져있다. 學風刷新을 위해서는 學生들 자신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問=「東國」, 「보리수」, 「師苑」 등의 各種 學生雜誌에 현상論文모집제를 실시, 게재論文의 質的向上을 꾀할 생각은 없는가? 또 작년 10월에 개최하지 못한 學術行事를 다시 개최할 것인지의 여부는?

▲答=本校에서 발간되는 各種學生雜誌의 論文의 수준은 他大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현상논문을 모집할 생각은 없다. 지난해 10월에 開催하지 못한 藝術祭、學術祭는 東國祝典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問=總團은 各써클에 대해 충실한 지원을 했는가?

▲答=써클을 위해 1年에 60만원의 예산이 든다. 3月末 각 써클에 칠판 1點씩을 제공했다. 써클을 學術및 奉仕·親睦써클로 구분하여 「룸」을 따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각써클에서는 總團에 協助의뢰가 많지않았다. 各써클로부터 보조가 必要하다는 公式的인 협조의뢰가 오면 예산이 미치는데까지 보조해 주겠다. 個別「써클룸」設置도 추진중이다.

▲問=總團活動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答=新學期에는 소신껏 활동해왔다. 총학생회는 대학내에서의 壓力團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總團은 「힘」이 없다. 교수·교직원들은 總學生會와 건전한 對話를 가져주었으면 한다. 특히 직원들의 학생에 대한 不親切은 빠른 시일내에 是正되어야 하겠다.

▲問=이번 학기의 主要 事業計劃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答=이번 學期에 力點을 둔事業은 여론조사였다. 학생들의 호응도 좋았다. 輿論調査에 나타난대로 學生들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외의 주요 事業으로서 單大別 體育大會와 代議員會 體育大會, 그리고 體育館준공기념행사의 하나로 高校 籠球大會를 개최할 것이다. 이 행사는 師大에서 주관하게될것이며 對外的인 「PR」도 겸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外國姉妹大學 학생들과의 「펜팔」 운동도 관심을 기울이고있다. 姉妹大와의 서신및 人的交流는 기획실산하의 國際담당기관을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造景사업의 일환으로 單大別및 써클別 동산을 마련하여 各單大와 써클에 그관리를 맡기겠다.

▲問=잔여 임기동안 총단活動의 方向은?

▲答=무엇보다 總團은 학교발전에 초점을 맞추겠다. 학교당국과 대화의 길을 마련,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學事行政上의 보수적 요소를 캐내어 학교당국에 그 是正을 요구하겠다.

▲問=總團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학교당국과의 대화의 통로는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答=4월초에 우등장학생과 李總長님과의간담회에서 건의한 復學·再入學者의 등록금인상차액 가납부의 문제도 행정에 연결되어 시정이 되었다.

앞으로도 總長님과의 간담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할것이며 學事行政의 實務者인 各課長과의 간담회를 개최, 대학통해 改善되야할 行政問題를 지적하겠다.

◇記者會見光景：左로부터 함주용特輯部長·李相幸編輯部長·宋賢喆取材部長·尹錫彜總學生會長·張世千學藝部長.

## 所信껏 活動… 그러나 對話不足

## 祝典은 學園正常化 先行돼야

## 懇談會 有益… 不親切 풍토 刷新

### 行事를 위한 行事止揚

▲問=이번 祝典의 準備계획은?

▲答=이번 祝典의 기간은 開校紀念日을 전후한 5日間 (5月6日~10日)으로 예정했으며 部長國과 單大會長을 차출하여 10여명으로서 祝典準備委員會를 構成할 것이다.

또 집행위원회를 구성, 각종행사의 진행을 담당하게할것이다.

▲問=祝典中 重要하다고 생각하는 行事는 무엇인가?

▲答=올해는 목면카니발을 카니발로 바꿨다. 4學年카니발은 종전대로 실시할 것이다. 이번 行事中 새로 企劃된 것은 「써클대행진」과 「미스東國」및 「미스총각」 등이다. 「초청연주회」 「장기자랑」 선발대회는 大會의 成果와는 관계없이 그뒤에 오는 個人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취소했다.

▲問=이번 祝典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했는가.

▲答=體育祭를 제외한 예산은 1백35만원이다 (작년은 1전백50만원). 昨年보다 작다. 실질적으로 작년 2백30여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작년수준의 行事를 치룰수 있을 듯 하다. 그러나 「行事를 위한 行事」를 지양하고 全東國人의 內的充實을 기할 수 있는 行事를 채택했기 때문에 충분할 것이다.

▲問=祝典행사에 대해 無用論을 主張하는 學生들이 많은데 이를 타파하기 위해 어떤 對策을 마련했는가?

▲答=例年의 행사가 「行事爲主」였고 천편일률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行事가 산만했기 때문에 「祝典無用論」이 대두되고 있다고 본다.

이를 타개하기위해 祝典개최 3~4日前에 全體學生들에게 팜플렛을 배부, 全東國人의 관심을 집중시키겠다.

이 期間中 路店설치도 허가제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路店설치를 막겠다. 또 행사를 갖고자 하는 部、써클、學會는 행사계획서를 제출케하여 시간및 장소를 조정하겠다. 제출하지 않은 團體는 行事개최를 취소하겠다.

祝典행사는 계속 추진하겠으나 學園정상화가 무엇보다 선행되도록 해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5、6월에있을 學術的인 행사만으로 넘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

# 本校팀 컨디션 好調

## —春季大學野球 연맹전—

◇梁漢哲의 민첩한 走者견제로 아웃당하는 成大1루走者.

75년도 전국대학야구연맹전에 出戰중인 본교팀이 2승1패의 전적으로 쾌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15일 東亞日報社주최로 열린 春季大學野球聯盟戰 인천시리이즈는 전국에서 총10개 대학팀이 참가、플리그로 열전을 벌이고있다。(高大는 休校로 불참)

지난 15일에 있었던 첫경기에서 본교팀은 1대0으로 강호 延世大를 물리치고 緖戰을 승리로 장식했다。 仁川公設運動場에서 [illegible]

<〈宋賢喆記者〉>

---

# 同窓會소식

## 근로奬學舍 同門會 臨總

## 奬學基金 20만원마련

근로장학사동문회 (회장=裵鍾大)임시총회가 지난 11일오후7시부터 장충동에 있는 근로장학사에서 열렸다.

졸업생20명과 재학생다수가 참석한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奬學基金의 現況과 앞으로의 諸問題點을 論議하였다.

장학기금모금에 대해서는 졸업생 1인당 1만원씩 거출하기로 하고、즉석에서 20여만원을 거출했다.

한편 기금의 運用과 事業展開는 尹天福 李在喆 裵鍾大同門에게 맡기기로 했다.

## 柳來馨同門기증 玉耶室에 벽시계

柳來馨同門(61·英文科)이 지난8일 여학생회玉耶室에 벽시계 1점을 기증했다.

### 同門動靜

▲洪淑子(54·政治)同門=博士學位 取得과 論說集「또 하나의 地平線을 넘어서」출판을 記念하는 祝賀宴이 많은 同門과 임병직、모윤숙、황신덕제씨등 2百여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오후6時「패시픽」호텔에서 열렸다.

▲허웅택(71·경영)同門=明星女高에 在職中 지난 5일 釜山 東邦燃料(株) 영업부장(8·4265)으로 轉職.

▲成墉吉(64·化學)同門=釜山大 助敎授인 成同門은 美國「유타」대학교大學院에서 材料科學分野연구를 위해 지난14일 KAL편으로 渡美. 앞으로 2년간 연구할계획이다.

▲柳永洙(61·영문)同門=美國中東部地區 東大同門會 副會長인 柳同門이 지난 4월13일귀국하여 15일 모교를 訪問、李瑄根總長을 예방했다.

---

# 캠퍼스 무대

## 各種행사 延期·流産사태

## 校門을 부서가면서까지…

○…교내시위사태가 몰고온 갖가지 話題가 캠퍼스 곳곳에서 맴돌다 사라지고 따사한 봄바람만이 스치고있는 요즈음。

역사의 證言者(?)—校門은 말없이 계속 學園을 지키고 있는데…。

지난 11일 난폭한 몇몇 학생들이 밀어내린 농구틀에 장충풀장쪽 정문이 일부 파피되었음은 불행한 일이었다。

經商大 H군은 『가장 理性的이어야 할 젊은이가 왜 충분해야만 하는지는 무엇보다도 교문이 잘말해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교문까지 부셔가면서…』라고 말끝을 흐리며 약간 서글픈 어조를 띠기도。

이 문으로 우리의 선배가 드나들었고、또 후배가 밀려들 것을 생각하면 혈기방장도 좋지만 교문은 아껴야죠。

○…4월의 개나리、벚꽃이 滿開한 캠퍼스에서 4·19의거를 새삼 되새겨 오기 올해로 벌써 15돌—。

그러나 지난 19일의 교정은 한마디로 「스산」하기만 했다。總團과 학교당국에서 추모식을 가지긴 했지만 선배들의 영혼을 기리는 東友塔엔 총장님의 吊花만이 쓸쓸히 지키고 있었다。

○…지난 11일 교내시위사태로 갖가지 피해(?)가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행사가 연기 내지 유산된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중의 하나。

지난 20일에 열릴 예정이던 東國人 登山大會를 비롯、교양학부독서콩쿨、工大體育大會、학술토론대회및 중간고사 등이 무기연기되거나 유산된것이 대표적인 例이고、이 밖에 학우회、써클등의 친선 모임이 취소되는 사태를 빚었던 것。

더우기 개교기념일전후에 열릴 예정이던 동국축전의 개최여부조차 자못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

여태껏 축전에 불참해 왔다는 농학과 3년 P군은 『이러다가 축전에 한번 참가도 못해보고 졸업하지나않을까』라고 그나름의 우려를표명하기도。

○…「가정학습」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주인 잃은 교정엔 봐줄 사람 없는 플래카드만이 쓸쓸히 바람에 날리고 있어 봄기운이 감도는 자연의 섭리와는 대조적이다。

학생회관 정면에 걸린 「동국중흥의 해」「교내풍토 쇄신」 등의 구호가 제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

이젠 비와 바람에 씻겨 색갈마저 바래져 「동국중흥」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인 인상을갖게한다。

여하튼 신학기초 벌인 교풍정화운동이 식지 않도록 주인들이 돌아올때가 되었으니 낡은 것을 버리고 새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한 캠페인이라도 있어야 할듯。

大學生
準社員募集

1. 人員 ○○名
2. 資格 市內 居住하는 大學生으로서 校內生活에 活動的인 사람

※우리나라에서 처음보는 野心的 企劃物인「英作文全集」을 大學生에게 널리 普及하고저 합니다.

3. 期間 1975年4月30日限 주민등록등본 및 學生證지참고 直接 來社要합니다.

時事英語社
☎㉙6621~2

Soft Lens
(소프트렌즈)
종래 Hard Lens
(경성)보다
이물감, 충혈,
바람, 먼지,
분실등의 불편
이 없읍니다.

한일콘택트렌즈연구소
서울 종로2가 아카데미극장 건너편
☎ 75-1518, 74-8563
부산시 충무동 중앙콘택트 렌즈 Lab,
☎ 22-5804, 42-7973

대학가의 희소식!
남·녀대학생
아르바이트
◎최소의 노력
◎최대의 효과
◎최고의 보수
당사는 학생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했읍니다.
※본업체는 북·쎄일이 아님
장소：종로2가 파고다 아케이트 316호
뉴-코론, 본포
㉒9491 (전화문의사절)

男性 고민해결
?
동도사의 최신압축기로
전화문의 ㉕1144
동대학생 특별할인

마스타·인쇄
옵셋트·활판
프린트·논문
각종 인쇄물
은 지성사로
※동대생 염가 봉사
대표 김 재 훈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2가226
☎㉔4763

이곳은……
젊음이 목마름을 축이는
도시속의 오아시스
젊음이 열정을 불태우며
미래를 나누는
대화의 광장

Pierre 그…
아늑한 분위기
정겨운 속삭임의 터
四季花마냥 꽃피는 온실
pierre
대한극장옆 (27) 5026

特別 教養講座
때：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2 시부터
곳：한국 꽃꽂이 연구회(명동해바라기 백화점 4층401호실)
여성의 품위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목적을 두어 누구나 교양강좌를 통해서 생활의 양식을 풍요하게 갖도록 한다.
강좌과목
①꽃꽂이와 정서생활 한길수 회장
②현대여성의 자기계발 이성원 원장
③종교와 인생 한명수 목사
④대화와 처세작전 모기윤 교수
⑤동양화를 통한 정서 정은영 선생
⑥보건의학 (위생) 과여성 이은택 박사
⑦한국 민속 이야기 이서구 선생
(무순)
주최：한국꽃꽂이연구회
㊻1436
회장 한 길 수
※꽃꽂이 교실과목①꽃꽂이 ②후라워디자인 ③리본후라워 ④드라이후라워 ⑤아메리카 후라워 ⑥훼더후라워⑦조화 ⑧목각 ⑨동양화 ⑩서예
※교육과정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사범반 ◎사범반 수료후 한국꽃예술작가회 정회원에 추천됨

올림피아광장
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美와 質
올림피아의 정성이
담긴
살뜰한 구두를
당신에게 권합니다.
Olympia 올림피아
(株)올림피아製靴商社
명동 76-1692·1709
국립극장옆에서 코리아나 건너편으로 이사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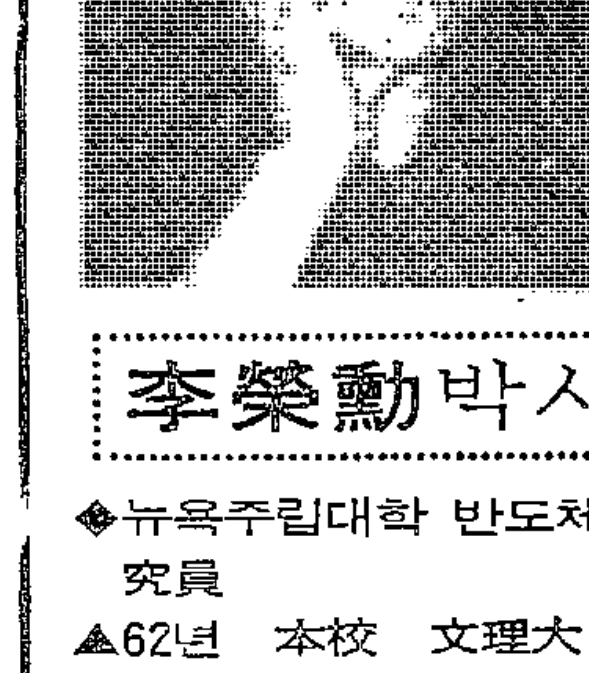
# 美國大學의 考査制度

## 成績表는 學生의 大學生活 評價

## US制에서 다시 A…F制로 환원

## 平素點數制 채택 돼야

**李榮勳박사**



◈뉴욕주립대학 반도체 研究員
▲62년 本校 文理大 物理學科卒 ▲66년 物理學科助教 재직중 渡美 ▲72년뉴욕州立大에서 논문 "中性子에 의한 반도체 결손"으로 이학박사학위 수여

작년11월12일자 東大新聞 社說에「大學의 考査制度」라는 題下의 論說이 있었다. 本人이 母校勤務中 그리고 物理學科 助教로 在學中 보고 듣고 그리고 經驗한 일들을 비추어 볼때 社說의 筆者에 많은 共感이 간다. 이곳 美國 大學街에서도 지난 數년동안 試驗採點制에 대하여 學生들과 교수들의 많은 反撥과 진통을 겪으면서 여러가지 制度가 實驗되었었는데 社說의 筆者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여기 간단히 美國大學의 考査制度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註>

美國社會의 취직戰線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학업성적표와 교수의 추천서라 하겠다。대학졸업자가 처음 사회진출시 한국에서와 같은 필답고사가 없으므로 성적표의 비중은 너무나 커서 일개인의 인생진로를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그러므로 反戰데모가 미국 대학가를 휩쓸즈음해서 학생들의 試驗評價에 대한 반발이 일기 시작했다。교수도 한인간이므로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학생을 數字的으로 평가할수 있을만큼 全能할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US制」를 채택시키는데 성공하였다。「US制」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오던「ABCDF制」에 반하여 Unsatisfactory(不合格)와 Satisfactory(合格)의 두가지로만 평점하는 제도인데, 원래 새로운 것은 아니고 강의성격상 필기시험이 불가능한 과목(자연계의 실험이나 인문계의 세미나등)에 한하여 이미 시행되어오던 것이다。대부분의 학교당국들은 이 학생측의 案을 지원제로 받아들였으므로 학생 개개인이 수강신청시「US制」를 원한다고 명시하여야 이것에 의한 評點을 받게 되어있다。그러나 착실한 학생들은「ABCDF制」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유는 그래야 자기 실력이 올바로 평가될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대학원이나 회사측에서 이제도에 의한 평가를 더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자연이 학생들도 원래의 제도로 돌아가지 않을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ABCDF制」가 어떻게 運用되고 있나 살펴보자。첫째, 東大처럼 학기말고사가 있는데 시험범위는 전학기동안 배운 것 전부가 常例로 되어 있을뿐더러 시험시간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시간반내지 3시간이므로 교수로하여금 많은 문제를 출제할수 있게 되어 있다。이 기말시험 이외에「One Hour Exam」과「Quiz」가 있는데, 이들은 물론 학부학생들에 한한 것이다。Quiz란 교수가 강의중 수시로 약10분간 학생들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고 Hour-Exam이란 매4주마다 50분간 보는 것으로 東大의 중간고사와 비슷한 것이라 할수 있다。이밖에 대학원 학생들을 포함한 전학생들에게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Homework」이다。학생 각자가 풀어야하는 숙제가 있는가하면 학생 몇몇이 그룹이 되어 그룹 리포트를 제출해야하는 커다란 문제를 다루는 일도 허다하다。

이렇게 다양한 시험제도를 어떻게 공정하게 配點하느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는 平素點數制와 期末點數制의 二元化를 채택하고 있다。이제도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Hour Exam과 Homework이다。이 두가지를 종합한 평균점수를 학생 본인들이 알고 있게 되어있는데, 학기말에 가서 이 평균이「A」라면 3시간의 긴 苦役(?)을 겪지 않고 (기말시험을 안보아도)「A」란 성적을 받게된다。만일 평소점수가「B」인 학생은 기말시험을 잘 치름으로써「A」로갈수 있지만 평소평균이「F」(failure)인 학생은 기말시험을 아무리 잘보아야 겨우「D」로 올라갈수있으므로 대개 중간에서 그 과목수강을 취소시켜「W」(withdraw)를 받는다。그러면 다음 기회에 재수강해서 이 점수를 회복할수있다。

韓國의 대학사정으로보아 교수들에게 많은 시간을 學生評點에 소비하라고 한다면 시간도없고 귀찮다(?)는 이유로 평소점수제를 외면할분도 많으리라 믿지만 교수의 경솔한 채점이 한 인생의 운명을 결정지우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느낀다면 점수를 쓰는 양심의 손이 떨리지 않을수 없다。물론 많은 受講生을 가진 교수에게는 특히 조수를 두어 채점을 돕게해야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결국 학교당국의 財政問題로 歸着되는데 이것은 각 學科에서 大學院학생들을 Fellowship형식으로 채용하면 충분히 해결될수 있을것으로 안다。채점을 하자면 우선 강의내용의 진전을 알아야 하므로 大學院生도 직접강의에 참석해야하고 그러는 도중 본인의 학문적 기반도 확고히 다질수있으니 대학생의 입장에서보면 一石二鳥의 利가 있을것이고 또 교수는 불가피한 사정이있을때 휴강을 하지않고 믿을수 있는 조수로 代講시킬수 있고 또 學部學生들은 바쁜 한사람의 교수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항상 찾아가 討論할수 있는 大學院生이 있으니 자연 공부하는 상아탑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이 든다。

끝으로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것은 학교당국의 學籍行政이다。東大에는 認定點數란 괴상한제도가 과거에 있었는데 (현재는 없기를 바라지만) 필자의 경험을 한 예로들어 보겠다。2학년 2학기말을 한달앞에놓고 徵集令狀을 받았다。期末考査를 볼수없는 사정이므로 당시 教務課에서 소정양식을받아 각 教授님들을 일일히 찾아 소위 인정점수를 받아야했다。내경우 다행히 1學期成績이 있었으므로 그것에 준하여 2學期성적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조금씩 점수를 낮추어 주셨지만 거기까지는좋았다。教務課에 이 결과를 제출한뒤 1년반의 군복무를 마치고 複校해보니 그때까지 학적부에 기재되지 않았을 뿐더러 더욱 기가막힌것은 인정점수의 最高許容點이 79점이란다。결국 전과목 79점이란귀신도 받을수없는 성적을 받았다。더우기 한 과목은 기입할 공백이 없어서 4학년2학기에다 기재하므로써 4학년학생이 2학년생이 수강해야할 一般物理를 택해서 79점을 받았다는 기상천외의 기록이 한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美國으로 유학을 온뒤 안 일인데 장학금 심사중 이것이 문제가 되었었단다。認定點數制가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면 외부로 보내는 성적표에 분명하게 어느과목들이 무슨 이유로 인정점수라는 註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성적표란 한 학생의 대학4년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가장 책임성있게 다루어야만 하겠다。

筆者의 所見으로는 東大에서도 평소점수제를 채택해야 진정한 의미의『공부하는 大學』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학생들은 心理的 압력때문에 항상 자기 공부에 열중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고 期末試驗때마다 도서관으로 밀려오는『벼락공부派』가 東大에서 자취를 감추게될 것이다。평소에『F』를 받은 학생이 아무리 期末試驗을 잘 보았다고 해도(불가능한 얘기지만)『D』밖에 받을수 없으니 학기말마다 말썽이 되는 부정행위도 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자연도태 되지 않을까? 美國大學生들이 열심히공부하고있는 이유들 가운데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이 빈틈없이 짜여진 대학의(나아가서는 사회의) 제도에 의한 강요에서 온다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메아리

## 年例行事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그 趣旨에 맞는 事業을 벌이는 것을「行事」라고한다。時間과 場所가 결정되면 그 행사는 공식적인것이 된다。나아가 그것이 매년 되풀이되면「年例行事」라고 말한다。그러나 非公式的이면서 年例行事化된 것이 꼭하나 있다。그행사는 어김없이 정해진무렵에 개최된다。그러나올해는 좀 일찍 찾아든느낌이다。별로달갑지않은行事이다。그것은 다름아닌 대학생들의 示威行事(?)이다。매년그렇듯이 이번示威도 國政에 대한 학생들의불만의표시다。많은 학생들이 除籍、無期停學등의 처분을받았다。

▲지금 大學에는 교수와 소수의 학생들만이있다。學生會館앞에는 개나리와 벚꽃이 만발해 있다。그러나 아무도 보아주지않는다。보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지금 캠퍼스에서는 아무것도 할수없다。주인이 없는 이마당에 무엇을 할수 있을것인가。中間考查도 뒤로미뤄졌다。學術討論大會도연기된 모양이다。東國人등산대회도 흐지부지 되었다。무슨 행사가 연기되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들어주는 주인이 없는데 해서 무엇하랴。

▲지금은 모두가 自重할 때다。왜 대학생은 정상적인 自己發見을 하지못하는가? 5월8일전후에 개최할 예정인 祝祭도그 개최여부가 不確實하다。축제를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는 總學에 기대를 거는수밖에 없다。왜 대학에는 진통이 있어야하는가? 거듭 물어보고싶다。既成秩序속에서는 언제나 젊은 대학생들은갈등이 있기 마련이다。과거 3·1운동부터 8·15해방까지의 學生運動은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저항하기위한 것이었다。학생운동의뚜렷한 표적이있었던 것이다。그래서 학생들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죽음으로써 울부짖었다。오늘의 대학생들은 현실에 직접 뛰어들어 고민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현실속에 내포된 모순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내일이라는 가능성 속에서 모색해야 할 때다。하루가 중하지 않는가。<幸>

### 文化短信

## 「로얄」발레단來韓

소련의「볼쇼이」발레단과 함께 今世紀 최고의 발레단으로 손꼽히는 英國의「로얄」발레단이 22일부터 24일까지 3회에 걸쳐 國立劇場에서 첫來韓公演을 갖는다。駐韓 英國文化院과 東亞日報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공연을위해「로얄」발레단의 무용수 입원및 지휘자등 1백11명이 지난18일 서울에 도착、연습중이다。公演「레퍼터리」는 차이코프스키의『白鳥의 湖水』『잠자는 숲속의 美女』、舞姬「니지야」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직업댄서』、「프레드릭·아쉬튼」의 力作인『돌보지않는 女子』등 古典및 現代作品으로 짜여져있다。「코벤트·가든」의 지휘자인「이마뉴엘·영」과「안소니·튀위너」가 객원지휘하는 國立交響樂團의協演이「로얄」발레단과「앙상블」을 이루게 된다。

## 大學生教養강좌

새세대문제연구회(部長=장청치)는 大學의 젊은 知性을위해 매주「목요강좌」를 실시하고 있다。연락번호㉘7833。

# 五月의 校庭에서

尹錫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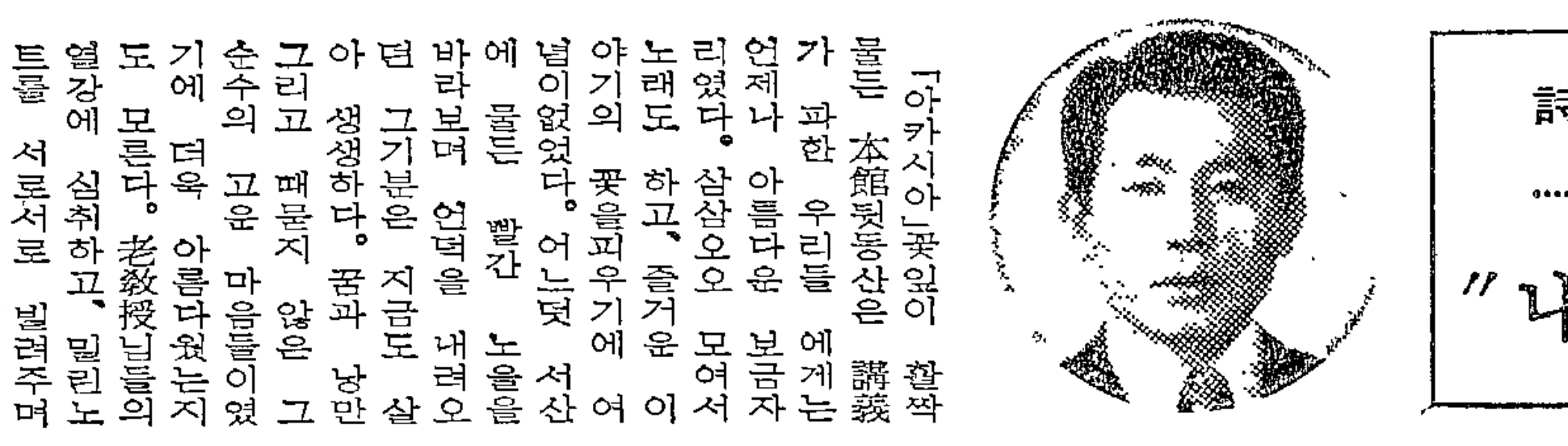
마지막 講義가 끝나고
놀이 도서실 유리창에
가만히 와 귀기울일 때
네 조용한 눈짓도
가만히 와 속삭였지。

아카시아 꽃비 나리는
5월의 校庭에서
네、순수의 목소리로
나에게 가장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그렇게

速報를 듣고
너와 내가 합격한
그 기쁨을 들고
깡충깡충 뛰어오르던
네 영원의 모습이
지금도 살아
속삭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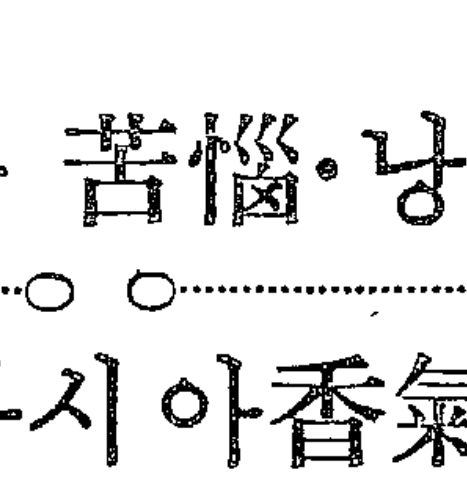
시간의 끝과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
어둔밤 외론 들녘에서
들려오는 맑-안 음성。

그 모두가
실비내리듯
너와 내 가슴에서 내리는 그
五月의 꽃비임을
나는 알고
있다。



### 詩作 노우트

## "내가 거닐던校庭"



## 純粹꽃피운 苦惱·낭만의 時節

## 校庭의 아카시아香氣같은 편린

「아카시아」꽃잎이 활짝 물든 本館뒷동산은 講義가 파한 우리들 에게는 언제나 아름다운 보금자리였다。삼삼오오 모여서 노래도 하고、즐거운 이야기의 꽃을피우기에 여념이없었다。어느덧 서산에 물든 빨간 노을을 바라보며 언덕을 내려오던 그기분은 지금도 살아 생생하다。꿈과 낭만 그리고 때묻지 않은 그 순수의 고운 마음들이였기에 더욱 아름다웠는지도 모른다。老教授님들의 열강에 심취하고、밀린노트를 서로서로 빌려주며 격려해주던 벗들、그리고 저마다 갖는 희열과 갈등、몸부림속의고뇌에 더욱 파랗게 精進하던 모습들。

文學의 밤이나、학교신문、동국교지 및 東國詩集에 실린 작품들을 놓고 제가끔 기염을 토하던 모습들。講義가 파하고 명동에 있던 갈채나 돌체의 음악실에모여 명상에 잠기거나 몇시간이고 입심좋게 떠들어대던 모습들、아니면 대폿집으로、영화관으로 고궁으로 밀려다니며 젊음의 시간을 수놓던 다정한 얼굴들、눈이나 비를 흠뻑맞아도 우산을 받지 않던 패기、버스값이 없어 같은 동료 여학생에게 손을 내 밀었을 때「다음엔 곱으로 갚아야 돼」하고 웃던 그 純粹。

호주머니는 언제나 가난하고 옷차림은 볼품없이 초라했으나 마음만은 항상 꾸밈이 없고 내일에의 꿈과 포부속에 넘쳐나던 모습들。

우리들은 항시 母校의 오랜 전통과 東國文學에 긍지와 자랑을 갖고 있었다。

한국문학을 대변 하는 기라성같은 많은 同門선배 및 훌륭한 교수님들。그것은 참으로 마음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또 그해 마침 처음으로 실시된 卒業學士考査를 치르느라고 공공대며 도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던일。서로 마음에 이끌리는 여학생과「데이트」를 해도 손한번잡아보지 못하고 더더구나「나는 너를 사랑한다」란 말은 차마 입밖에 내지 못하고、純粹의 영역을가꾸던 그 모습들이「아카시아」향내처럼 자꾸만떠오른다。

지금은 사회 각층에서 많은 활동과 업적을 쌓고 있는 벗들、벌써 他界하여 마음의 밀어를함께 할 수 없는 故人이 된 영혼의 벗들。어쩌다 校庭에 들를때마다 나는 이 5월의 교정에 피어나는 아카시아 꽃향내에 흠뻑 취하곤 한다。그리고 詩「五月의 校庭에서」는 그 많은 純粹중 한 쪽의 회화에 불과하다。

<同門·詩人>

### 隨筆

# 봄

金完秀

겨울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화창한 봄이 되었다。도시 近郊의 울타리엔 개나리가 노랗게피고 불그스레한 진달래가 싱싱하게 눈을 刺戟하는 봄이다。

萬物이 모두 新生의호흡을하는 季節이라서 그런지 나는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털솜같이 부드럽고 포근하게 느껴지는 구름을 바라본다。

일찌기 陶淵明은「春水滿四澤」이라고하여 날씨가 화창하고 사방의 못마다 봄이 가득 찼을때를 봄이라 했고 저 宋의 文章家 蘇東坡는 봄을「春風搖江天漠漠」이라고 노래했다。李白의「陽春召我以煙景」이라는 詩句는 굳이 들지 않더라도 역시 三春은 운애낀 풍경과 화창한 날씨라야 제 격인가 보다。

나는 봄기운을 느끼면서 유유히 뻗어있는 길을 거닐었다。街路樹가서 있는 거리를 산책한다는 것은 마음에 여간 정겨운 것이 아니다。

나는 微風을 몸에 맞으며 개울을 따라 어느새 山으로 들어와있다。개울물은 희다 못해 차라리 푸르다。自然은 나에게 形言할 수 없는야릇한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人間이 自然을 찾게되는 것은 그와 合致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과 對立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는 여태 수풀에서있었다。숲은 아직 환하고 새들은 지저귀며 나무사이를 날고 있다。바라보이는 清楚한 갈대밭과 洛東江 하류의 철새들은 마치 한 폭의 東洋畵와같이 고요하다。이런데서 어찌 詩心이 일어나지 않을수 있으랴。나는 자연의 이러한 꾸밈없는 모습을 사랑하기에 이곳을 찾은 것이다。

해질 무렵、나는 낙동강가로 나갔다。

「洛東江!푸른 물이 흐르는 洛東江! 哀愁와 憤怒가 흐르는 洛東江!」

어느 詩人은 이렇게 읊었다。

오늘도 八百里 그 푸른 물을 피로 물들였던 洛東江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이 默默히 흐르고 있다。나는 江어귀에 서서 발걸음을 멈춘채 그대로 서있었다。

<文理大·國文科>

# 自我發見

朴 昞 榮

<師範大·數教科>

人類文化가 高度로 발달함에 따라 宇宙의 거리가 短縮되고 時空間의 概念이 달라지고 있는이때 特히 우리의 眼目이 너무나 근시안이 되어가고 있는것 같다。따라서 현대사회는 이로 말미암아 派生되는 온갖 不條理 現象속에서 諸矛盾과 갈등、시기와 질투속에서 번민하고 몸부림치고 있다。특히 사회 諸制度가 高度化 多元化되어진 條件下에서 모든機構가 分業化되어 이에 종사하는 모든 個體는 사회에서 격리되어 남을 볼줄모르는 視界의 마비현상이 더해갈 뿐이다。보다 나아가 人間의 안목이 근시안적으로 되어간 원인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3、14세기 이전의 암흑세계에서 잠을 깬 인간의 새로운 自覺이 再生하면서 출발하여 自己中心의 사상이 발전되고 極度의 利己主義를 낳았고 이로 因하여 더욱 자신과 자기 주위의 좁은部分 밖에는 볼줄 모르는 個體意識만 가진 인간이 되어 버렸다。結局 인간은 자기중심에서 파생된 새로운 결과로서 전체를 볼수 있는 양심이 마비되어 전체를 보는 눈을 상실하는 중대한 危機를 맞는 것이다。그래서 현대에 살고있는 많은 사람은 根本이 없는 철학의 不在속에서 뿌리없는 부평초 마냥 나를 찾지 못하고 나의 갈곳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것이다。사람이란 두뇌와 양심의 규제를 받아 자신의 모든 행동을 양심의 명령대로 움직이며 前後左右 四方을 골고루 돌려 볼줄 알아야 남을볼 수 있고、이웃을 볼 수 있고、국가와 세계를 볼 수 있는데도 現代人은 이 人間本然의 행위를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외곬수밖에 될 수 없는 편협된 눈이 아니라 수많은 面을 동시에 골고루 볼 수 있는 理性의 맑은 거울같은 눈이 있어야하는 것이다。

옛말에 明鏡之水란 말이있다。人間의 心鏡이 거울같이 밝게비추려면 양심에 파문이 일지 않고 神秘鏡에 쌓인 仙境이 湖水처럼 잔잔해야한다。그래야만 물속에 모든 事物과 주위의 사물이 그대로 호수에 비추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눈도 바로 볼수 있는 것이다。例를 들어보자。잔잔한호수에 조그마한 돌하나라도 떨어뜨려 파문이 일면 水中이나 水上의 모든 事物들의 形體가 이그러지고 바르게볼수 없는것과 같은 理致가 되겠다。이와같이 우리의 눈도 조금이라도 양심의 거리낌을 받아 平靜狀態가 유지되지 못하면 形而上學的 形而下學的인 사물들을 바로 보지 못할 것이므로 항상 양심의 근본을 발견하여 明鏡之水와 같은 잔잔함과 깨끗한 마음의 눈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상태에서만이 自我의 價値觀을 認識하지못하고 方向感覚을 喪失한채 일방적이고 相對的인 진리속에서 헤매이는 우리에게 올바른 價値觀의 基準과 올바른방향을 提示하여 不義 不正 모든 不安의 要素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혜성과도 같은 안목의 소유자가 되는것이다。인간의 基本倫理며 基本觀念이 되는 이러한 안목을 통한 自我의 발견이 양심 환원에 立脚한 理性에 前提가 되어야하며 거기에 순수양심의 바탕을 둔 이성적사랑으로 사회와 有機的連結을 하면서 諸部分을 확대하고 分析研究하여 전체속에서 自我를 찾을때 참다운 自我를 찾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新着圖書

### 韓國古印刷技術史

<金斗鍾著·探究堂>

이 책은 우리 과거 印刷術의 걸어온 자취를 종합적으로 총망라했는데, 내용을 보면 제1편 上世印刷史, 제2편 中世인쇄사(高麗印刷史), 제3편 近世朝鮮인쇄사로 되어 있다. 그리고 1백95페이지에 달하는 圖版이 수록되어 있어서 이 방면의 연구에 뜻을 둔 학생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줄 믿는다.

저자는 이 책의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그 책의 刊行年代·板本의 형태및 字體·鑄字本·官私板의 구분·紙質 및 製本樣式과 또는 그 책에 붙어있는 序·跋들을 중심으로 한 書誌學연구자료에 특히 유의했다.

###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前期歌辭를 中心으로—

<李相寶著·螢雪出版社>

歌辭에 대한 본격적인 理論의 探索 작업은 趙潤濟박사의「歌辭文學論」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歌辭작품의 효시는「賞春曲」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이 가사문학으로서의 歌辭에 대하여 그 장르적 概念을 규정하고, 그 내용과 형식의 특색을 살펴, 그것이 生成發展해온 과정을 체계화하는 첫 작업으로서 이 논문을 작성했다고 한다. 그리고 필자는 歌辭발생에 대해서는「賞春曲」을 효시로 삼는 儒家偏向의 태도를 벗어나서 寺刹을 중심으로 口傳해온 謠唱文學으로서의 佛敎가사가 존재했던 사실을 중요시하였다.

### 宗教의 世界

<徐京保著·昌麗社刊>

本校 佛敎大 徐京保박사의 저서이다. 제1편「위대한 발자취(3大聖人論)」제2편「佛敎의 理解(敎理강좌)」제3편「宗敎와 藝術과 歷史」로 나누었다. 現代人의 宗敎강좌.

### 孔子思想의 人間學的 研究

<鄭瑽著·東國大學校출판부>

이 著書는 孔子의「思想」을「論語」에 의거하여 人間學的 측면에서 君子論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시 말하면 순전히 사상적 일관성만을 찾아서 처리하되, 오로지 인간적인 것과 이것의 철학적 내지는 人間學的 원리를 위주로 전개시켰다. 이 저서의 내용을 보면 제1장 君子의 본질및 구조·제2장 子貢과 子夏와 曾子·제3장 孔子가 본 군자다운 제자들·제4장 공자가 추앙하는 군자들·제5장 공자와 理想的 人間像으로 되어있다.

### 特殊營養學

<李琦烈著·新光出版社>

延世大 家庭大학장 李琦烈박사가 74년도 문교부로부터 지급받은 학술연구造成費로 집필한 것. 특수영양학은 영양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필수과목이다. 그럼에도 이에 관한 우리말 서적이나 교재가 없었던 실정에 착안한 勞作이다.

### 교양국사총서

<교양국사편찬위원회 편>

교양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李瑄根박사)가 펴낸 교양국사총서(文庫版)가 새로나왔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을받아 이번에 발행된 총서는 ①「한글과 민족문화」(허웅) ②「한국의 고분」(김원룡) ③「청자와 백자」(진홍섭) ④「불탑과 불상」(황수영) 등으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발행.

### 外資國有化論

<李重範著·一潮閣刊>

檀國大 法政大 李仲範교수의 著書. 이 分野에서는 國內에서 처음나온 單行本이다. 國際法學徒들의 研究에 도움이 될 책이다.

### 日本近代化研究

<韓培浩著·高大出版部刊>

高大 韓培浩교수가 同校 아시아문제연구소는日本의 근대화과정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데 1차적인 목적을두었으나 이에 국한하지않고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해온 理論的 퍼스펙티브에서 日本近代化과정을 평가해 보려는데 주력을 두었다. <中央圖書館제공>

■ 오늘의 韓國을 사는 知識人의 週刊誌
서울평론
第75号
全國有名書店에서
発売中
값 8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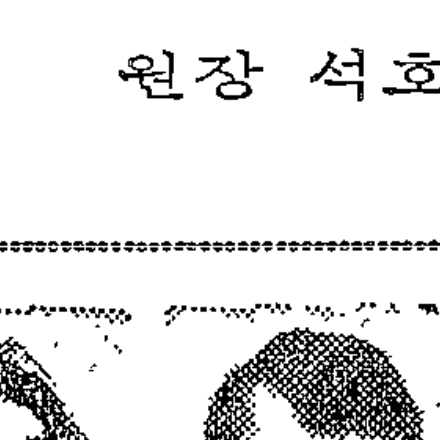
■ 巻頭칼럼
美国外交의 漂流 · 金學俊
台湾의 将來 · 金達中
■ 今週의 論文
印支와 統一戰線戰略 · 金泰瑞
■ 뉴욕 타임즈 特派員의 現地報道
台湾에서 본 美国의 対中国政策 · 조셉 렐리벨드
■ 2次大戰의 마지막 指導者
蔣介石総統— 風雲의 87年 · 韓東元
自由中国—그 悲劇의 教訓 · 李聖根
■ 새 長期시리즈
冷戰의 歷史 · 崔相龍
第1篇 · 冷戰의 意味와 그 克服

지난호의 주요내용
■( )內의 數字는 揭載號數
■今週의 論文
現代社會와 知識人 車河淳(1)
民主主義와 理性 李奎浩(7)
새時代를 여는 哲學 金炯孝(9)
知識人 知的自由 柳宗鎬(12)
周恩來 外交方式 李泳禧(15)
社會意識·歷史意識·個人意識 韓相完(18)
大學精神·大學文化 高永復(20)
作家와 祖國 鮮于煇(21)
政策과 知性 金경元(24)
中共과 海洋紛爭 尹世哲(31)
國史學과 國史教育 金哲俊(34)
韓·美·日의三角關係 梁好民(40)
理念政黨은 可能한가 裵成東(41)
歷史的으로본 韓·中關係의 特質 全海宗(42)
文化의 復元 金元龍(47)
郷土文化祭 張籌根(50)
韓國의 知的 風土 鮮于煇·李炳柱·林憘燮(52)
政治와 宗教 黃性模(55)
寬容 高柄翊·盧在鳳·裵周鎭(60)
韓國女性과 女權運動 李効再(61)
民意 李廷植(64)
大學生과 自我意識 車仁錫(68)
■對談
豫言·韓國의 80年代 허만·칸金瓊元(3)
學問·思想·現實 李用熙 盧在鳳(9·10)
佛教와 基督教의 만남 徐景洙·李箕永·올타이저(39)
語文研究1백년의 成果 李崇寧·李基文(63)
韓·日關係 濃과淡 ·後官虎郎金玉烈(66)
經濟學의 發展과 時代意識 趙璣濬·姜命圭(69)
■綜合書評
開化期 西洋人의 韓國研究 李光麟(8)
韓國文學史의 諸問題 金柱演(23)
새韓國資本主義 史像의 摸索 金泳鎬(36)
實學研究의 進涉와 그意義 尹絲淳(36)
戲曲文學의 擴大 韓相喆(54)
70年代 作家群의世界 李商燮(60)
民俗學研究의 進展 金烈圭(69)

■ 定期 購讀案內—3個月 1,000원 · 6個月 2,000원 · 1個年 4,000원 서울에 계신분은 전화 ⑦⑤6150)로 연락하시면 곧 배달 또는 우송해 드립니다 / 地方에 계신분은 대체구좌 1661번으로 소정액을 불입하시면 송료 본사부담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 지난호를 원하시는 분은 ⑦⑤6150 로 연락하십시요.

개강 5월1 일 (현재접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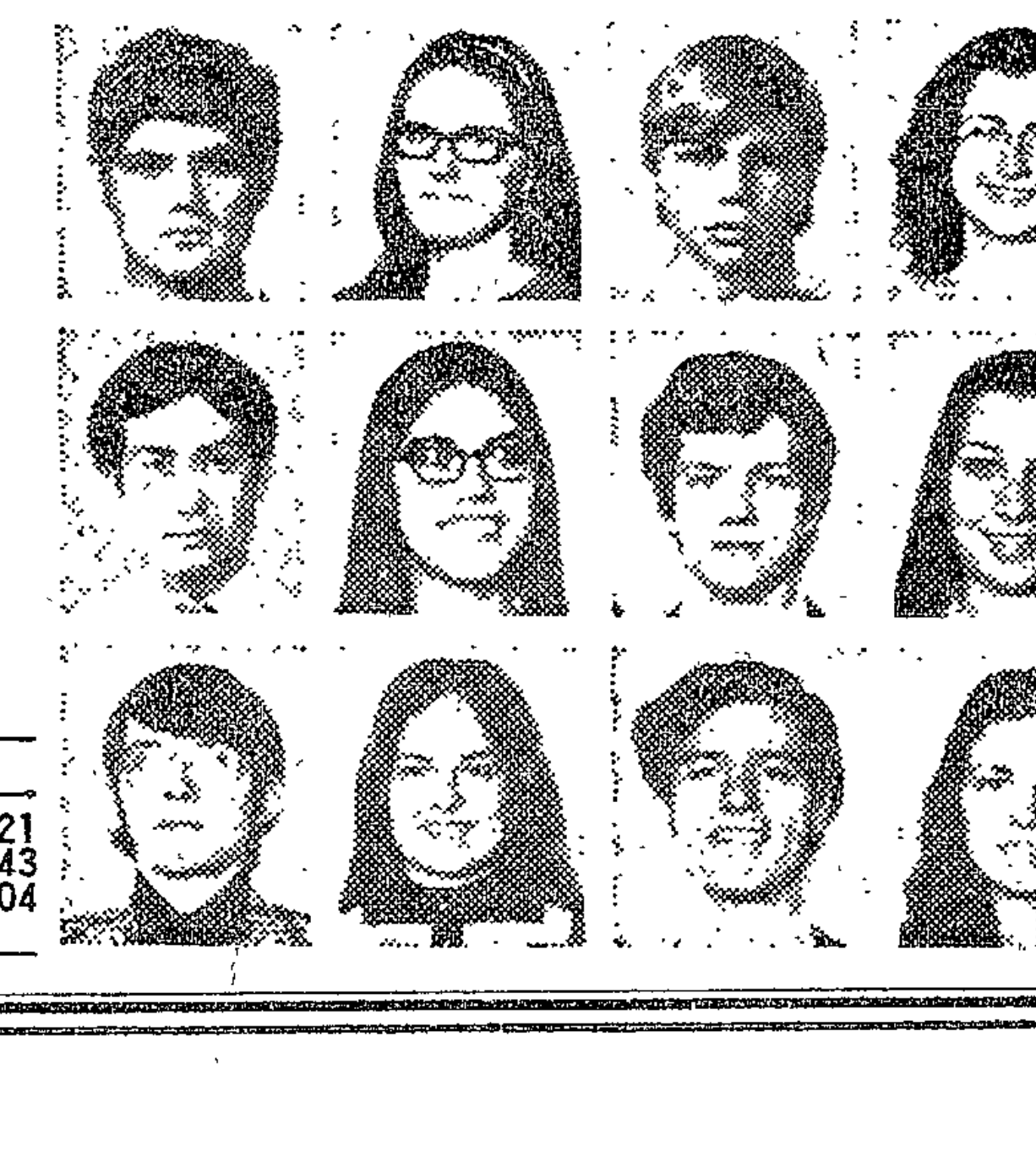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영어회화를 배울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영어를 읽을수 있고 쓸수 있읍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SDA영어학원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영어를 말할수 있도록 배울 때입니다.
지난 5년동안 SDA영어학원은 한국에서 60,000여명에 이르는 분들에게 영어를 말하도록 가르쳤읍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서 가장 큰 영어회화학원으로 성장했읍니다. 한국인들에게 맞도록 꾸며진 교재와 호흡을 같이하는 훈련받은 미국인 교사들은 당신이 영어를 말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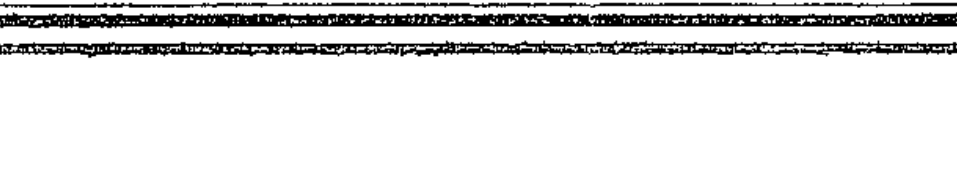
Dave. Scofield 원장 석호필선생
원장 석호필선생

※초보자를 위하여 한국인 교사반 신설
☆본학원은 지성인 들에의하여 선택된 학원입니다
본원을 졸업한 60,000여명중 68%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강사전원 미국인 ◎새로운 형태의 영어회화전문교육기관
◎국제규모의 메머드시설 ◎국내최대의 어학실습실 사용
◎완전히 미국적 학습 분위기 ◎엄격한 정원제 실시

서울·부산·광주동시개강
SDA영어회화학원



서울학원 부산학원 광주학원



서울 : 서울위생병원건물 (청량리—중랑교쪽) ⑨⑦1275 ⑨⑦7521
부산 : 대신동3가507 ④③1036 ④②1843
광주 : 불로동120 ③8903 ③8904